

역경 극복을 돕는 성인 한국인의 긍정성 탐색 : 긍정적 태도 척도 개발과 타당화*

현 경 자*
우리사회복지연구소

이 연구는 역경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되는 성인 한국인의 긍정성을 탐색하고 그 구성개념에 따라 긍정적 태도 척도를 개발하여 타당화 작업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긍정성을 자신과 자기가 속한 사회를 다각도로 살펴 긍정적 측면에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성향과 그에 따른 긍정적 태도로 규정하였다. 한국인의 긍정성은 긍정적 관점, 자기긍정성, 사회긍정성으로 구분될 수 있고, 구체적으로 긍정적 시각을 촉진하는 관점의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소신, 자기조절, 사회적응, 사회수용과 같은 특성을 보일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론추출 방식과 경험적 연구결과를 토대로 척도문항들을 선정하였으며, 서울과 대구지역의 대학생 373명과 일반 성인 401명을 대상으로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론적 예측과 일관되게 6개 요인이 추출되었다. 하지만 이 중 자기소신 요인은 해당 문항들에서 타 요인에 중복 부하된 것이 많이 있었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5요인의 적합도가 6요인보다 우수하게 나타나 요인의 순수성과 척도의 간명성을 위해 제작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최종적으로 긍정적 태도 척도는 긍정관점 요인 1개(다각화), 자기긍정성 요인 2개(자기수용, 자기조절), 사회긍정성 요인 2개(사회적응, 사회수용)로 구성되었다. 제작된 척도의 구성타당도, 내적합치도 및 구인, 예측, 증분 측면에서의 타당도는 적절하게 나타났다. 예측대로 이 척도는 자존감, 희망감 등의 긍정적인 자기특성 변수들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심리사회적 안녕 변수들과도 유의미한 상관을 나타냈으며, 긍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 관련 변수들에 대한 자존감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긍정적 태도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됨을 보여주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이론적, 임상적 의의와 제한점, 후속연구 방향을 제언하였다.

주요어 : 긍정심리, 긍정적 관점, 자기긍정성, 사회긍정성, 관점 다각화, 사회적응, 사회수용, 자기수용, 자기조절, 자
기존증감, 희망감, 긍정적 태도 척도, 타당도

개인의 긍정성은 삶의 역경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빛을 발휘하는 특성으로 간주된다. 한 예로, 살다보면 누구나 처할 수 있는 역경에 대한 의미 부여나 대응은 개인의 긍정성에 따라 차이가 나 역경을 통해 자기 성장과 발전을

* 이 논문은 2005년도 정부(교육인적자원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5-042-B00143). 이 연구의 척도항목 개발과 자료수집에 도움을 준 계명대학교 박선영 교수와 본 논문에 대해 유의한 조언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분들께 감사한다.

* 교신저자 : 현경자, (121-140)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56 SK 허브그린 1911, 우리사회복지연구소, 전화 : 02) 2130-3151, Email : swwhyun22@hanmail.net

경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비판과 부정적인 태도로 실패를 초래하여 자기 비하와 무력감을 경험하는 이도 있다. 삶의 과정에서 위기를 기회로, 난관을 자기성장의 계기로 삼는 이들은 대체로 자기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 및 세계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Seligman, 2002; Walsh, 1998), 그러한 개인들이 보이는 긍정성의 근원이나 구체적 특성에 대해 알려진 것은 많지 않다. 서점 가판대의 자기개발 서적들이 강조하듯이 긍정적인 사고나 긍정적인 태도가 개인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면(예 : Byrne, 2006; Osteen, 2005), 그러한 긍정성은 과연 어디에서 비롯되어 그와 같은 힘을 발휘하는가?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유지하고 사는 이들의 긍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보이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가? 이러한 의문들에 대한 탐색은 사회심리학의 한 분야로 근래에 발전하고 있는 긍정심리학의 이론 개발과 지식 확장에 기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와 대처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새로운 개인특성 요인의 규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더욱이 긍정성의 근원과 구성요인들에 대한 이해는 임상실천 현장에서 개인의 강점, 탄력성 등의 개발에 필요한 통찰을 제공할 수 있고, 그러한 긍정성에 기반 한 긍정적 태도의 측정도구 개발은 강점중심 개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척도로도 활용될 수 있어 그 유용성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

기존문헌을 살펴보면 개인의 성격이나 자기(self)의 긍정적 측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연구와 측정도구들은 많이 있다. 예를 들면, 다섯 가지 성격요인 척도(McCrae & Costa, 1987)에 포함된 개방성(openness), 호감성(agreeableness), 성실성(conscientiousness) 요인은 긍정적 성품에 대한 이해와 측정을 가능하게 하고, Snyder, Harris 등(1991)이 개념화하여 개발한 희망(hope) 척도로는 개인의 목적지향과 목적달성 경로에 대한 자신감을 살펴볼 수 있으며, 낙관성(optimism)의 측정지표(예 : Scheier & Carver, 1985a; Seligman, 1991)는 미래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와 사고성향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평가를 엿볼 수 있는 자기존중감(self-esteem)의 경우 국내외에 다양한 척도가 개발되어 있고(예 :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유화, 정진경, 2007; Brown & Alexander,

1991; Rosenberg, 1965; Tafarodi & Swan, 1995), 특정 과제의 수행 능력에 대한 개인의 자신감을 측정할 수 있는 자기효능감 척도(Bandura, 1977) 등도 있다. 이러한 척도들은 개인의 성품, 사고성향, 태도, 능력, 자기평가 등에 내재한 긍정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하는데 기여하며 단편적이거나 긍정성의 효과와 영향력을 살피는데 유용하지만 이들을 통해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시각과 태도를 유지하며 사는 이들의 긍정성을 체계적으로 밝히거나 그 효과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역경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유지하도록 돕는 개인의 긍정성과 그 구성요인들을 탐색하여 밝히고 그러한 긍정성의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 절차를 수행하였다. 첫째, 긍정성의 개념화를 위해 기존의 자기긍정성 관련 척도 및 문헌과 강점중심 임상개입 이론 등을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살필 수 있는 개인의 통찰력은 무엇에서 비롯되며, 그러한 통찰력과 자기성찰을 통해 개발되거나 강화되는 개인의 긍정성은 구체적으로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그러한 긍정성의 구성개념에 따라 우리나라 대학생과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긍정성의 구성요인들로 이루어진 긍정적 태도 척도의 제작 및 타당화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연구는 개인이 소유한 특정 측면의 긍정적 성향을 측정하는 기존의 척도연구와 달리 개인의 긍정성을 포괄적으로 개념화하고 그 구성요인을 탐색하여 측정도구를 개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긍정성이 역경에서나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유지하도록 돕는 특성임을 고려하여 측정도구를 긍정적 태도 척도로 명명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작된 척도는 긍정성의 효과를 체계적으로 밝히고, 강점중심의 임상개입으로 기대되는 개인의 긍정적인 변화를 임상개입 방법과 관련된 측면에서 포착해내는 데도 유용할 것으로 보였다.

개인의 긍정성 평가에 유용한 기존 척도의 시사점

기존 척도들 중에서 개인의 긍정적 성향을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대표적인 도구는 자기존중감 척도라 할 수 있다. 자기존중감은 일반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인 평가 또는 가치판단을 의미하는데, 이

에 대한 정의는 학자들에 따라 약간씩 차이를 보인다. Rosenberg(1979)에 따르면 자존감은 자신에 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 평가와 관련되는 것으로 자기존중과 자기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정도를 뜻하고, Tafarodi와 Swan(1995)은 자존감을 자기만족과 자기 능력에 대한 자신감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존의 자존감 척도들을 살펴보면, 자기존중감을 단일차원으로 개념화하여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예 : Rosenberg, 1965)부터 다차원 또는 다면적이며 위계적인 구조로 개념화하여 측정하는 것(예 : Harter, 1986; Marsh, 1990) 그리고 문화적 영향을 고려한 척도(예 : 한유화, 정진경, 2007)까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데, 개인의 긍정성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한계가 발견된다.

우선 기존 척도들은 대부분 자존감의 개념화 과정에서 그러한 자기긍정에 이르는 경로나 근원을 간과하여 측정에 반영하고 있지 않다. 즉 다수의 기존 척도는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촉진하는 요인과 긍정적인 자기평가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참작하여 이 두 요인을 함께 측정하지 않고, 긍정적 자질이나 속성을 묘사한 항목들을 통해 자기존중이나 자기긍정의 정도만 추정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주관적인 자기평가에 근거한 긍정성이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살필 수 있는 통찰력과 자기성찰에서 비롯된 긍정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게다가 기존의 척도 항목들은 측정도구로서의 편향(bias) 방지를 위해 긍정적 자질이나 속성을 수반하는 맥락이나 조건을 대부분 명시하지 않아 그런 항목에 높은 점수를 부여한 이들의 긍정성이 타당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기존 척도들의 한계로 자존감과 관련된 연구들의 결과에 일관성이 없으며(차경호 외, 2006), 자기존중감이 어디에서 유래하여 어떻게 유지되는지에 대한 논란(김동직, 한성열, 1998)도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실제로 개인의 자존감을 사회문화적으로 중시하는 미국에서 기존 척도들에 의해 평가된 자존감의 효과는 꼭 긍정적이지만은 않다(Baumeister, 1998; Crocker & Park, 2004). 한 예로, 현실의 성취에 기반하지 않은 높은 자존감은 자아 위협을 느낄 때 대인폭력 등과 같이 자신과 타인에게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보고도 있다(Baumeister, 1998).

게다가 서구에서 개발된 자존감 척도에 의한 개인의

긍정성 평가는 문화적으로 편향될 수 있는 한계점을 갖고 있다(조궁호, 2003; 한유화, 정진경, 2007; Heine, Lehman, Markus, & Kitayama, 1999). 개인의 긍정적 자기평가는 문화적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문화적으로 강조되는 사회적 목표와 가치의 실현 및 충족이 평가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개인의 독립을 지향하는 개인주의 사회에서 중시하는 개별성, 독특성, 유능성 등에 초점을 둔 자존감 척도로는 집단주의 사회에서 발달하는 자존감을 포착하기 어렵는데 학자들 간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Heine et al., 1999 참조). 한국과 같은 유교문화권은 관계중심적이며 타인과의 상호의존을 중시하는 자기인식이 발달하므로 자기억제, 상황적응성, 대인관계에서의 조화 유지 등이 자아존중감의 근거가 될 수 있다(조궁호, 2003). 최근에 한유화와 정진경(2007)에 의해 제작된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는 개인주의적 요인과 집단주의적 요인을 모두 고려하고 자기평가의 근거가 되는 맥락을 항목에 명시하여 평가의 타당성 판단이 용이하지만 조사 대상이 우리나라 대학생들로 한정되어 문화적 요인에 따른 구분이 타당한지와 척도의 적용대상 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한편 개인의 미래지향적 성향을 엿볼 수 있는 희망 척도는 측정도구의 개념화에 유용한 통찰을 제공하고 있다. 이 도구를 제작한 Snyder, Harris 등(1991)은 희망(hope)이 목적지향적인 자기주도성 뿐만 아니라 목적달성 경로에 대한 이해에 기반 한다고 보고, 희망을 이 두 가지 인지적 요소의 총합체로 규정하였다. 개인의 목적지향에 따른 긍정적인 사고와 정서의 경험은 목적달성을 위한 자기결정과 그 경로에 대한 이해 및 자신감과 밀접하게 연관된다는 가정 하에 이들은 희망의 근거가 되는 이 두 가지 인지적 요소를 척도에서 함께 측정하도록 한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주관적 평가이기는 하지만 보고된 희망의 타당성 평가가 용이해지고 그러한 심리특성의 효과 및 기여도 판단에 좀 더 자신감을 가져볼 수 있는데, 이는 기존 척도들 보다 진일보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개인의 긍정성 평가에 유용한 기존 척도들의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개인의 긍정성 평가는 문화적 가치와 지향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자존감에 한정되지 않은,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에 근거해야 함을 추론해볼 수 있다. 둘째, 긍정성의 개념

화 과정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살필 수 있는 인지적 특성과 그로 인해 발달하거나 강화되는 긍정적 태도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함께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셋째, 척도제작 시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성인들을 조사대상에 포함시켜 척도의 적용 대상 폭을 넓히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사점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긍정성의 개념화와 구성요인의 탐색을 아래와 같이 시도하였고, 그러한 개념화에 따른 측정도구 제작으로 긍정성의 효과를 새로운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긍정성의 개념화 및 구성 요인

긍정성은 사전적으로 “그러하다고 생각하여 옳다고 인정함” “바람직한 성질이나 특성” 또는 “좋게 평가하고 본받을 만한 사실” 등으로 정의된다.¹⁾ 이러한 정의는 무엇이 긍정적인지에 대한 평가가 절대적이기 보다 사회문화적으로 구성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긍정성을 사람, 사물 또는 세상의 있는 그대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바람직한 성질이나 특성에 주목하여 좋게 평가하는 성향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개인의 긍정성은 자기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의 가치를 인정하고 바람직한 또는 좋은 자질, 특성, 측면 등에 주목하여 의미를 부여하는 긍정적인 인식성향과 그로 인해 발달하거나 강화되는 바람직한 개인특성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개인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의 힘은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살필 수 있는 통찰력, 사고능력에서 비롯된다고 보고, 사고초점의 전환과 자기 성찰의 심화 및 확대를 도울 수 있는 관점의 다각화가 그러한 힘을 발휘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가정하였다.²⁾ 구체적으로 관점의 다각화는 사물, 사람, 세상 또는 사회현상을 설명하고 이해하는데 있어 다양한 관점을 활용하여 여러 입장과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인지적 성향 및 활동을 뜻한다. 이러한 인지적 성향은 의미발견이나 의미창조(또는 의미부여)를 촉진하여 대안적인 의미 창출과 상황판단을 가능하게 하므로 이를

통해 긍정적인 인식성향이 강화될 수 있고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태도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긍정성을 자신과 자기 속한 사회를 다각도로 살펴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식성향, 즉 관점의 다각화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개인의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긍정성의 동력이 될 것으로 가정한 관점의 다각화는 개인의 의미발견이나 의미창조(또는 의미부여)를 도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발견과 의미 부여를 보다 쉽게, 보다 빈번히 그리고 보다 많은 측면에서 할 수 있게 하므로 현재의 자신과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이해, 수용, 만족, 믿음을 유도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이해와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촉진되면 좀 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행동을 하려는 동기가 양성될 수 있으므로(Higgins, 1987, 1996) 소신껏 좀 더 자율적인 자기조절이 가능하고, 따라서 충동이나 공격성, 적대감 등 부정적인 행동을 제어할 수 있다.

사소한 일상이나 생존을 위해 사람들이 수행하는 많은 일들에서 의미 발견과 의미부여가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일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거나 당연하게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 다양한 관점과 시점 및 입장에서 자기 자신과 자기가 해온 일들을 살펴보는 과정은 한 개인으로서의 자신과 그가 속한 사회에 대한 이해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것들을 보다 의미 있게 조명할 수 있다는 깨달음을 낳아 개인의 자기수용, 자기소신, 자기조절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를 양성할 수 있고, 자신을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건강과 적응을 촉진하므로(Taylor & Brown, 1988)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도 촉진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관점의 다각화와 그로 인해 촉진되리라 예측되는 자기수용, 자기소신, 자기조절, 사회수용 및 사회적응 요인들로 구성된 긍정성이 개인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끄는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다. DeJong과 Berg(2002)는 대안적 의미와 정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능력이 개인에게 강화될 때 긍정적 태도가 나타나기 쉽다고 하여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사고초점의 전환과 의미발견 및 의미창조(또는 의미부여)가 자신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 및 적응을 도모하리라는 이상의 논리를 지지한다.

1) 긍정성과 긍정의 정의는 인터넷 다음의 국어사전에서 인용하였으며 게시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krdic.daum.net/dic/contents.do?query1=A005857100; query1=A005856900>.

2) 관점의 다각화, 사고 초점의 전환, 자신과 사회에 대한 성찰의 심화 및 확대는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서로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이 중 관점의 다각화가 핵심이라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 긍정성의 기반으로 전제된 관점의 다각화 효과는 Langer(1992, 2000)와 그 동료들(Brown & Langer, 1990)이 주의깊음(mindfulness)으로 명명한 인지 기능 방식과 자기의식(self-awareness) 고양 및 자기지식(self-knowledge) 등의 효과(Baumeister, 1998)를 통해서도 추론해볼 수 있다. Langer(1992, 2000)의 연구에 따르면 자신이 처한 환경을 주의 깊게 살피고 관점을 전환하여 조망하는 일을 통해 개인은 진부한 상황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며 그로 인해 깨닫고 배우는 것이 많다. 주의깊음과 같은 인지기능 방식은 맥락과 관점에 보다 민감하도록 하여 우리 자신을 제한하는 마음상태가 형성되는 것을 막으며, 새로운 범주를 만들어내고 구별지어 여러 관점에서 자신의 환경을 재구성하도록 하는데, 이는 관점의 다각화를 통해 기대되는 인지 활동과 유사하다. 더욱이 주의깊음은 경험에 대한 의미부여를 돕는 사고의 유연성을 촉진하고, 따라서 환경에 대한 개인의 적응능력과 행동의 유연성을 증가시켜 자기수용(self-acceptance)을 강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Carson & Langer, 2006). 그러므로 이러한 주의깊음에 대한 이론 및 연구결과를 근거로 관점의 다각화와 자기수용과 같은 긍정적인 태도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추론해 볼 수도 있다.

한편 앞서 논의했듯이 다양한 관점과 시점에서 자신과 삶을 조망하는 일은 개인의 자기(self)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도와 자기에 대한 정보 및 지식(self-knowledge)을 강화시킬 수 있다. 자기에 대한 지식이 축적되면 사람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성찰하게 되어 자기의식이 고양되는데, 이러한 자기의식의 고양과 자기지식의 증가는 태도와 행동의 일치율을 높이는데 기여하여(Carver & Scheier, 1981), 개인이 자신의 긍정적 태도에 부합해 살고자 하는 성향을 증가시킨다(Higgins, 1987, 1996). 실제로 자기의식의 고양은 도덕적인 후덕한 행동을 증가시키고, 대학생들이 시험 볼 때 쓰는 속임수와 아이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사소한 유형의 도벽 등 부정적인 행동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에 대한 남성의 공격성향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고된다(Scheir, Fenigstein, & Buss, 1974). 자기의식의 고양은 기억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모습이나 상황을 지각하게 하여 본인에게 때때로 불편할 수 있으나 본질적으로 자기규제를 지향하도록 하여 매우 적응적이고 유익한 기능을 하며,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견

해를 촉진하여 개인의 내구력(persistence) 등 자기조절을 요하는 특성들까지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Higgins, 1996). 실제로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환경적응과 성공에 중요한 자기조절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가 강한 사람은 타인의 영향과 조작에 무르고 행동이 우유부단한 것으로 나타난다(Brockner, 1984). 게다가 자기조절 능력은 목적지향적인 행동을 촉진하고 생각, 행동, 느낌, 충동, 수행 등을 적절히 규제하여 유용할 뿐만 아니라 적응적이며 궁극적으로 개인에게 보다 건강하고 행복한 상황을 초래하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된다(Banaji & Prentice, 1994). 이와 같은 자기(self) 이론과 연구결과를 토대로 관점의 다각화가 자기지식의 증가와 자기의식 고양을 촉진시키고 따라서 자기수용, 자기소신, 자기조절 뿐만 아니라 사회적응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을 해볼 수 있다.

이상에서 논의된 개인의 긍정성은 사람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개인특성으로 누구에게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존재하는 성향으로 볼 수 있는데, 임상적 개입을 통해서도 그러한 긍정성이 양성되거나 강화될 수 있다. 한 예로, 강점 관점에 기반 한 해결중심 상담모델(DeJong & Berg, 2002)은 개인의 긍정성을 양성할 수 있는 임상모형으로 볼 수 있다. 해결중심적 접근에서 클라이언트는 어떤 것이 옳고 틀린가에 대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 자신과 타인, 사회와의 관계 등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응답하면서 스스로 사회적 규범, 타인의 기준, 적응적 기능 등에 대해 생각해보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박선영, 2008). 이러한 강점지향 접근은 일종의 관점 다각화를 도모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자기 성찰적 경험은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평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바람직한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DeJong & Berg, 2002). 클라이언트가 한 인간으로서의 자신과 자신의 삶을 바라볼 때, 해결중심적 접근은 다양한 입장과 시점에서 자신과 자기 삶의 긍정적 측면을 볼 수 있도록 인식 방식의 전환을 돕거나 격려하여 자신에 대한 긍정적 감정, 생각 등을 촉진하므로 사고의 유연성, 긍정적 행위에 대한 동기 등을 양성할 수 있어, 이러한 임상접근법을 통해서도 개인의 긍정성이 개발되거나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인의 긍정성은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돕는 관점의 다각화와 그로 인해 촉진되는 자신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러한 개인의 긍정성은 사람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개인특성으로 간주되며, 해결중심적 상담과 같이 개인의 강점에 초점을 맞춘 임상적 개입을 통해 양성되거나 강화될 수도 있다고 보았다. 구체적으로, 긍정성은 자기 자신과 사회의 긍정적인 가치를 살피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거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도록 돕는 관점의 다각화와 그로 인해 강화되거나 양성될 수 있는 자기수용, 자기소신, 자기조절과 같은 개인적 요소, 그리고 사회적응 및 사회수용과 같은 사회적 요소로 구성될 것으로 가정하였다.³⁾ 따라서 개인의 긍정성은 자기긍정과 사회긍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러한 긍정성의 기반이 되는 관점의 다각화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개인의 삶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긍정의 힘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관점의 다각화가 자기긍정이나 사회긍정을 촉진하고 그러한 자기긍정이나 사회긍정이 관점의 다각화를 격려하는 상호관계를 가정해볼 수 있지만, 낙천적이거나 긍정적인 성품으로 자기긍정이나 사회긍정이 강한 것이 관점의 다각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연구에서는 관점의 다각화를 긍정성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

3) 일반적으로 자기수용, 자기소신, 자기조절, 사회적응 또는 사회수용은 개별적인 개념으로 인식되거나 다루어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긍정관점인 다각화와 밀접하게 연결된 긍정성의 구성 요인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고, 보기에 따라 긍정성이 새로운 구인이라기 보다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을 조합한 합성된 개념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이 연구는 개인의 삶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긍정의 힘을 전제하고 그러한 긍정성을 측정하기에는 기존의 측정도구들의 한계가 크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따라서 긍정성을 좀 더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 규정해보고자 하였고 개인 긍정성의 한 근원이 될 수 있는 관점의 다각화를 새롭게 개념화하여 긍정관점, 자기긍정, 사회긍정을 주축으로 그에 포함되는 요인들을 하위개념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자는 기존에 논의되거나 연구되어 온 개념일지라도 그것을 긍정성의 큰 틀에 포함시키는데 논리적으로나 이론적으로 근거가 분명하다면 그러한 시도는 의미가 있다고 보았다. 만약 경험적인 자료를 통해 긍정성의 개념화에 고려된 하위개념들과 관점 다각화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지지되고, 그런 특성을 체계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단일 척도가 만들어질 수 있다면, 긍정성의 효과 및 기능을 다각도에서 살펴 궁극적으로 개인의 긍정성에 대한 지식개발 및 확장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의의가 있다고 보았다.

은 긍정성의 개념화를 토대로 개인의 긍정적 태도를 측정할 수 있는 도구의 제작과 타당화 작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방 법

연구 1 : 긍정적 태도 척도 제작

항목 선정을 위한 예비조사

조사대상

척도개발을 위해 제작된 항목들의 의미전달 및 요인구성의 타당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예비조사는 서울 지역과 대구지역의 성인 및 대학생 176명을 대상으로 2006년 4월에 실시되었다. 편의표집 방식으로 확보된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27.37세($SD=9.48$)로 20세부터 30세 미만의 응답자가 78%($n=136$)로 가장 많았고 30세 이상 60세 미만이 20%($n=36$)를 차지하였다. 응답자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36.4%(63명), 여성이 63.6%(110명)로 나타났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중퇴부터 대학원 졸업까지 다양하였으며, 평균 교육년수는 15.21년($SD=3.04$)이었다.

척도항목 개발 및 선정 절차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긍정성과 그 구성요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측정도구에 포함될 문항 114개를 일차적으로 개발하였다. 각 문항 내용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긍정심리, 강점관점, 탄력성, 긍정적 자기특성, 인지기능방식, 문화심리 등 관련 이론, 경험적 연구결과, 해결중심 상담 기록지 등을 반복적으로 검토하였고, 긍정성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측정할 수 있도록 개인의 긍정적 인식성향 및 태도와 관련된 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특성이나 반응을 묘사하는 문항들을 제작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이론 추출한 문항들은 내용타당성, 표현적절정, 임상현장에서의 활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리학 및 사회복지학 연구자 2인, 해결중심 상담가, 임상분야 석사과정 연구원 등에 의해 면밀히 검토되었다.

예비조사지의 지시문에 사람들이 살면서 힘이 들 때나 일상생활 중에 때때로 갖는 생각, 느낌, 행동 등을 묘사한 문항들임을 밝히고, 각 문항이 응답자를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 생각해보고 6점 리커트 척도(1. 거의/전혀 그렇

표 1. 긍정성의 구성요인별로 예비조사를 통해 선택된 문항의 예

긍정성 구성 요인		요인별로 척도제작을 위한 본조사에 선택된 문항의 예
긍정 관점	관점의 다각화	· 나는 어려운 일에 처하면 여러 각도에서 그 일을 살펴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
		· 나는 주변 사람들과 나 사이에 생기는 힘들거나 좋은 일 모두에 기여한 바가 있다.
		· 나는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자기 긍정성	자기이해/ 수용/만족	·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실하게 사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 나는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 나는 남에게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산다.
자기 긍정성	자기 소신/믿음	·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나는 불안해진다.*
		· 나는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현재 내 생활에 불만이 많다.*
		· 나는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갖고 있다.
자기 긍정성	자기조절	· 나는 속상한 일이 생겨도 내 자신을 잘 다스려 주위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 나는 살다가 힘이 들면 남의 탓을 하기보다 내 자신을 돌아보며 마음을 비운다.
		· 나는 내 일의 성과가 좋지 않아도 필요하다면 참고 노력한다.
사회 긍정성	사회적응	· 나는 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이 흥미롭다.
		· 나는 내 인생의 목적인 바를 이 사회에서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 나는 우리사회가 점차 다양해지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
사회 긍정성	사회수용/ 만족	· 나는 뭐니 뭐니 해도 내가 태어나 살아온 이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 나는 문제가 많은 이 나라를 떠나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한다.*
		· 나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 부정적으로 묘사된 항목은 역방향의 응답이 해당 긍정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함.

지 않다; 2.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어느 정도 그렇다; 6. 거의/전적으로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정하도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동아시아인들은 척도의 중간치를 이용하여 응답하는 성향이 높아(Heine et al., 1999) 그러한 경향을 피하고 반응의 변산도를 높이기 위해(박병기, 홍승표, 2004) 6점 척도를 이용하였다. 예비조사 자료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요인 모형이었고, 기초구조의 추출방법은 주축분해방법(principal axis method)을 사용하였다.

이상의 요인분석을 통해 긍정성을 구성하는 주요인들의 의미 및 내용 타당성 등이 검토되었고, 이를 토대로 척도 개발을 위한 본조사에 포함될 최종 항목들이 선택되었으며, 항목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성의 구성개념으로 가정된 요인들에 항목들이 명확하게 부하되어야 한다. 따라서 2개 요인 이상에 높은 부하량을 일관되게 보

인 항목들이 제거되었다. 예를 들면, 자신 보다 가족, 주변인들을 위해 참는 등의 타인과 상황에 맞추어 나를 조절하는 문항들은 2요인과 3요인 모두에 부하되는 모호한 결과를 보여 삭제되었다. 둘째, 항목들 간의 상관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였다. 끝으로, 항목선정의 최종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는 긍정적 성향과 경험을 최대한 고려하여 한국인의 심정에 맞고 문화적으로 친숙한 도구 구성(최상진, 2000)에 부합하도록 하였다. 또한 선정된 문항들의 내용 타당성과 표현 적절성 등의 평가를 위해 긍정심리와 문화심리를 연구하는 학자 및 해결중심 상담전문가들과의 집단 또는 개별회의를 가졌다.⁴⁾ 이 과정을 통해 내용 타당성이나 표현 등에 의문이 있는

4) 척도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토해주시고 유익한 의견을 주신 서강대학교 심리학과 김정택, 조공호 교수님과 해결중심 상담전문가인 솔루션센터의 최인숙, 김윤주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문항이 삭제되거나 수정되었고 그에 따라 40개 항목이 제거되었으며 총 74개 항목이 최종적으로 본조사 설문지에 포함되었다. 본 조사에 포함된 척도문항들의 예는 표 1에 긍정성의 구성 개념별로 제시되어 있다.

척도개발을 위한 본조사

조사대상

긍정적 태도 척도 개발을 위한 본조사는 서울 및 수도권($n=422$)과 대구지역($n=352$)의 일반 성인과 대학생 총 774명을 대상으로 2006년 5월에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편의표집을 하였다. 대학생들($n=373$)의 경우, 서울과 대구의 주요대학에서 심리학이나 사회복지학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이 조사에 참여하였다($n=184, 189$ 각각). 일반성인들($n=401$)은 조사대상이 특정층에 한정되는 일이 없도록 서울 및 수도권과 대구지역 모두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표집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 중소기업 사무직이나 노동직 종사자, 야간경영대학원생, 사회복지관 이용자들이 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n=239, 162$ 각각). 조사참여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보면, 남녀의 비율이 각각 49.2%($n=379$)와 49.4%($n=382$)로 거의 같았고, 교육수준은 초등학교 중퇴부터 대학원까지 다양하였다.5) 구체적으로, 대학교 재학 또는 중퇴자가 54.4%($n=419$)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대학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층이 31.1%($n=241$)를 차지하였으며, 고등학교 졸업 또는 그 이하의 비율은 12.1%($n=94$)로 낮았다.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만 18세부터 66세까지 다양하였고, 평균 연령은 29.34세($SD=9.68$) 이었다. 전반적으로, 척도제작 및 타당화 조사에 참여한 자들은 청장년층과 교육수준이 높은 층이 많았다.6)

5) 성별과 학력의 무응답자 비율은 각각 1.7%와 2.6%이었다.

6) 조사참여자들의 직업을 보면, 학생이 48.6%($n=37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그 외 전문/자유직 9.6%($n=74$), 사무/기술직 8.9%($n=69$), 경영/관리직 7.5%($n=58$), 가정주부 7.1%($n=55$)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은 평균적으로 2점 '약간'과 3점 '어느 정도'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을 보였고($M=2.54, SD=1.03$), 건강상태는 평균적으로 3점 '건강하지는 않아도 아픈 데는 없다'와 4점 '건강한 편이다'의 중간에 해당하는 수준($M=3.53, SD=.85$)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응답자들이 비교적 건강하고 서민층이나 중산층에 속함을 추론해볼 수 있었다.

측정

긍정적 태도 척도 개발을 위한 본조사 항목들의 측정은 예비조사와 일관된 방식을 채택하였고 조사항목의 예는 앞서 언급했듯이 표 1에 있다. 응답자들은 사람들이 살면서 힘이 들 때나 일상생활 중에 때때로 갖는 생각, 느낌, 행동 등을 묘사한 각 문장을 읽고 그것이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6점 리커트 척도(예 : 1.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6. 거의/전적으로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분석방법

개인의 긍정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6요인이 가정되었으나, 그러한 긍정성에 대한 개념화가 이 연구에서 새롭게 시도된 점을 고려하여 일차적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해 무응답 비율이 높은 항목을 살펴본 결과 무응답 비율이 제일 높은 항목이 1.2%로 미미하여 본 조사에 포함된 74개 항목을 모두 요인분석에 포함시켰다. 둘째, 탐색적 요인분석은 전체 표본($n=774$), 일반성인 표본($n=401$), 대학생 표본($n=373$) 각각에 대해 실시하여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표본들 간의 요인구조 유사성을 검토하였다. 끝으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도출된 요인들과 해당 문항들에 대한 내적일치도 계수를 산출하여 각 하위요인의 신뢰도를 살펴보았다. 이차적으로 이와 같은 탐색적 요인분석 결과와 긍정성의 개념화를 토대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여 도출된 요인들로 구성된 척도모형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확인적 요인분석 시에는 구성개념의 교차타당화를 위해 전체표본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표본($n=500$)에 대한 분석을 함께 실시하였다. 또한 긍정성을 구성하는 긍정관점과 자기긍정성 또는 사회긍정성으로 구성된 하위척도 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여 긍정성의 모든 요인을 포괄하는 전체 척도뿐만 아니라 자기긍정성과 사회긍정성 각각에 대한 구성개념 타당성을 살펴보았다. 이 연구의 빈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신뢰도 분석 등은 SPSS 10.0을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확인적 요인분석은 AMOS 7.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결 과

긍정적 태도 척도의 요인구조와 구성요인들 간의 관계

긍정적 태도의 척도제작을 위한 요인분석 모형은 공통 요인 모형이었고, 기초구조의 추출방법은 주축분해방법(principal axis method)을 사용하였다. 일차적으로 74문항 전체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거의 모든 항목들이 첫 번째 요인에 부하되었으며, 이 중 66문항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다. 또한 첫 번째 요인은 긍정적으로 묘사된 항목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두 번째 요인은 부정적으로 묘사된 항목들과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1차 분석에서 긍정성의 구성개념에 근거하여 선정된 문항들이 변별되어 나타나지 않았고 1요인과 2요인은 각각 긍정성과 부정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요인별로 부하되는 척도항목들의 순수성을 확보하기 위해 1요인과 2요인 모두에 정적으로 부하된 26개 항목을

모두 제외시키고 나머지 48개 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재차 실시하였으며, 개인의 긍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요인들 간에 상관이 있으리라는 가정 하에 비직각회전방식을 이용하여 요인구조를 회전하였다. 요인추출의 기준은 스크리 검사와 1이상의 고유치를 갖는 것으로 한정하였고(Kaiser, 1974) 요인부하량이 .30 이상인 항목만 척도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DeVellis, 1991). 요인부하량이 .30에 근접한 것은 문항의 내용이 추출된 요인에 개념적으로 타당할 경우 개념 우선 원칙에 의해 포함시켰다. 또한 요인별 신뢰도 계수를 산출하여 내적일치도를 떨어뜨리는 문항을 살펴보았으나 이에 해당되는 문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척도 항목들에 대한 표본별 요인분석 결과와 요인별 신뢰도계수는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의 전체표본 분석 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가정한 6요인, 즉 관점 1요인, 사회긍정성 2요인, 자기긍정성 3요인이 예측

표 2. 긍정적 태도 척도의 요인분석결과 및 신뢰도 계수*

문 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 ² 전체/일반 대학생
	다각화 전체/일반 대학생	사회적응 전체/일반 대학생	사회수용 전체/일반 대학생	자기수용 전체/일반 대학생	자기소신 전체/일반 대학생	자기조절 전체/일반 대학생	
나는.....							
1. 어려운 일에 처하면 여러 각도에서 그 일을 살펴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	.59/.51/.63						.59/.58/.62
2.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면에 의미를 둔다.	.58/.69/.55						.59/.62/.65
3.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므로 내 마음을 다스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54/.70/.45						.60/.64/.63
4.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1/.40/.39						.51/.52/.53
5. 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	.47/.60/.32						.64/.66/.65
6. 매사에 부정적이다.	-.45/-.31/.39				-.21/-.37/.19		.53/.54/.58
7.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 한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다.	.32/.24/-.35						.39/.48/.40
8. 우리 사회가 점차 다양해지는 것에 불안함을 느낀다.		.64/.70/.69					.44/.50/.50
9. 이 세상 곳곳에서 터지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느낀다.		.47/.34/.37					.31/.28/.36
10. 나는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 내 자신을 맞추기가 어렵다.		.46/.46/.49					.35/.33/.39
11. 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이 흥미롭다.		-.41/-.31/-.40					.45/.38/.51
12. 이 세상이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느낀다.		.30/.18/.21	-.25/-.30/-.31				.33/.33/.40
13. 내 인생의 목적인 바를 이 사회에서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28/.29/.19			-.03/-.24/.22		.30/.35/.35
14. 뭐니 뭐니 해도 내가 태어나 살아온 이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77/-.74/.69				.58/.54/.50
15. 문제가 많은 우리나라를 떠나면 좋겠다고 종종 생각한다.			-.61/.69/-.60				.46/.53/.46
16.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57/-.56/.60				.48/.49/.48
17. 비슷한 사람끼리 정을 나누고 사는 우리 사회가 좋다.			.46/-.50/.44				.45/.48/.47
18.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실하게 사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68/.47/.62			.58/.55/.60
19. 내 나름대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내 자신이 좋다.				-.64/.41/.45			.61/.72/.54
20.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는 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47/.47/.31			.52/.56/.53
21. 지나 온 날들을 돌아보면 나도 잘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뿌듯해진다.				-.46/.35/.33		.19/.35/-.06	.52/.57/.53
22.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 같다.				.39/-.22/-.43			.45/.44/.44

표 2. 계속

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요인 6	h ² 전체/일반 대학생
	다각화 전체/일반 대학생	사회적응 전체/일반 대학생	사회수용 전체/일반 대학생	자기수용 전체/일반 대학생	자기소신 전체/일반 대학생	자기조절 전체/일반 대학생	
23. 내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20/.33/.10			-.36/.21/.28			.55/.51/.64
24. 사람들이 나의 노력을 몰라줄 때 좌절감을 느낀다.					-.59/.38/.49		.38/.35/.42
25. 내가 사는 방식에 대해 다른 사람들이 문제점을 지적하면 나는 불안해진다.		.11/.38/.05			-.47/.28/.51		.36/.36/.43
26. 사람 사는 것이 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지만 현재 내 생활에 불만이 많다.			-.19/.29/-.23		-.35/.07/.46		.52/.54/.54
27. 세상에 대한 회의가 많다.				.24/-.08/-.28	-.30/.36/.26		.54/.55/.57
28. 무슨 일을 하고자 할 때 할 수 있다는 생각보다 잘 될까 하는 의문을 먼저 갖는다.	.21/-.31/.17				-.29/.09/.45		.32/.34/.41
29.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내가 좋다.						.64/.67/.18	.54/.62/.53
30. 힘들거나 답답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50/.37/.37	.42/.39/.39
31. 속상한 일이 생겨도 내 자신을 잘 다스려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42/.39/.50	.48/.48/.49
고유값(eigen value)	12.72/13.1/1.02	3.03/3.28/1.57	1.91/1.96/2.1	1.76/1.06/12.63	1.61/1.49/3.13	1.34/1.53/1.86	
설명량(총 46.6%/46.7%/46.5%)	26.5/27.3/2.1	6.3/6.8/3.3	4.0/4.1/4.4	3.7/2.2/26.3	3.4/3.1/6.5	2.8/3.2/3.9	
신뢰도계수(α)	.85/.84/.86	.68/.65/.70	.73/.72/.73	.82/.83/.82	.71/.70/.71	.68/.69/.66	

* 부하량이 .30 미만의 항목들은 각 요인에 부하된 항목들의 의미 파악을 돕기 위해 표에 제시하지 않았음.

과 일관되게 1부터 6요인에 추출되었고, 위에서 언급한 항목선정 원칙에 따라 총 31개 항목이 이 6개 요인에 포함되었다. 각 요인의 특성과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요인 1은 긍정성의 개념화에서 중시한 관점의 다각화를 묘사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예를 들면, 개인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각도에서 그 일을 살펴 긍정적인 측면을 찾거나 긍정적인 면에 의미를 두고, 사소한 일상생활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내용의 문항들이 1요인에 부하되었다. 요인 1에는 7개 항목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으며, 이 요인은 주요 내용의 특징을 반영한 '다각화'로 명명되었다. 요인 1의 신뢰도 계수는 .85로 총 문항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내적일치도를 보였다.

요인 2에는 사회에 대한 개인의 긍정적 태도를 엿볼 수 있는 문항들이 부하되었다. 구체적으로, 사회에 대한 불안이 적고,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나 변화하는 사회에 자신을 맞추어 가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적으며 흥미를 느끼는 등 개인의 사회적응성과 관련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다. 요인 2는 5개 항목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고, 1개 항목은 부하량이 .30에 못 미쳤으나 개념 우선 원칙에 의해 포함되었으며, '사회적응'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2의 신뢰도 계수는 .68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 근접하였다.

요인 3에도 개인의 사회긍정성이 느껴지는 문항들이 부하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 느끼는 좋은 평가, 애정, 긍정적 태도 등이 드러났다. 예를 들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비슷한 사람끼리 정을 나누고 사는 우리 사회가 좋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요인 3은 4개 항목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으며, '사회수용'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3의 신뢰도 계수는 .73으로 수용 가능한 수준인 .70보다(DeVellis, 1991) 높게 나타났다.

요인 4에는 자기긍정성의 개념화에서 고려한 개인의 자기만족, 자기수용 등을 나타내는 문항들이 부하되었다. 자신의 성실성이나 열심히 살아가는 생활태도에 대한 자기만족, 나름대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 등이 주 내용을 이루고 있다. 요인 4는 6개 항목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으며, '자기수용'으로 명명되었다. 요인 4의 신뢰도 계수는 .82로 부하된 문항들 간의 내적일치도가 우수하였다.

요인 5에는 자기긍정성이 높은 사람에게 기대되는 자기소신, 자신이나 세상에 대한 믿음 등과 관련된 문항들이 포함되었다. 이 요인에는 4개 항목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고, 1개 항목은 부하량이 .30에 못 미쳤으나 자기소신의 내용에 부합하여 포함되었다. 전반적으로 부하된 항목들의 역방향성이 긍정성을 나타내어 부하량의 값이

표 3. 긍정성 구성요인들의 요인상관지수(전체/일반/대학생)

	1	2	3	4	5	6
1. 다각화	-					
2. 사회적응	-.23/-.23/.24	-				
3 사회수용	.31/-.37/-.26	-.17/.20/-.23	-			
4. 자기수용	-.41/.33/-.27	.20/-.15/-.18	-.33/-.23/.19	-		
5. 자기소신	.13/-.05/.20	-.31/.24/.40	.13/-.02/-.20	-.22/.01/-.18	-	
6. 자기조절	.38/.29/-.26	-.28/-.14/-.15	.24/-.23/.07	-.35/-.23/.09	.11/-.05/-.08	-

부적인 형태를 보이거나 그러한 특성이 자기소신 여부를 반영한다고 판단되어 요인 5는 ‘자기소신’으로 명명되었다. 이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71로 나타났다.

끝으로, 요인 6은 긍정성의 개념화에서 예측한대로 자기조절을 나타내는 문항들로 구성되었다. 예를 들면, 개인의 자기조절 능력을 엿볼 수 있는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내가 좋다,” “힘들거나 답답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요인 6은 3개 항목이 .30 이상의 부하량을 보였으며, 신뢰도계수는 .68로 수용 가능한 수준에 근접하였다. 요인 6은 ‘자기조절’로 명명되었다.

요약하면, 척도개발을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성의 개념화 과정에서 가정한대로 개인의 긍정성이 6개의 하위요인으로 구분됨이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긍정적 관점과 관련된 다각화 1개 요인, 자기긍정성과 관련된 자기수용, 자기소신, 자기조절 3개 요인 그리고 사회긍정성과 관련된 사회적응과 사회수용 2개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 6개 요인의 신뢰도 계수 범위는 .68에서 .85 사이로 수용가능하거나 양호한 수준을 보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된 긍정적 태도 척도 요인들의 구성타당도와 표본들 간의 요인구조 유사성을 검토하기 위해 본 조사에 참여한 일반성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을 구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2의 분석결과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일반성인, 대학생 세 표본 간에 각각의 요인에 부하된 항목들이 매우 유사하였고, 이들 6요인에 의한 설명량도 46.6% 내외로 거의 일치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요인의 순위에서는 집단별로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었다. 일반성인 집단의 요인순위는 전체 집단과 유사하여 관점의 다각화가 설명량이 가장 높은 1

요인으로 나타났고, 그 외 사회적응, 사회수용 요인 순으로 설명량이 높았다. 대학생 집단의 경우 긍정성 6요인에 속하는 요인들이 1요인부터 5요인(즉, 자기수용, 자기소신, 사회수용, 자기조절, 사회적응)에 해당되었으나 전체 또는 일반집단과 요인 순위에 차이를 보였다. 이와 더불어 일반성인 집단에서는 자기수용 요인이 10번째 요인으로 추출되어 상대적으로 설명량이 낮았고, 대학생 집단에서는 다각화 요인이 그러한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예외적인 차이점은 있었으나 이 두 요인에 부하된 항목들은 타 요인에 중복 부하되지 않아 순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전반적인 결과를 근거로 세 집단 간의 요인구조와 해당항목 들 간에 유사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끝으로, 표 2의 집단별 분석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과정에서 전체집단의 5요인, 즉 자기소신에 해당되는 항목들이 다른 요인에도 비슷한 부하량을 지니는 등 순수하지 못한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음이 발견되었다. 전반적으로 5요인에 부하된 항목들은 1요인부터 4요인 중 하나에 중복 부하된 것들이 포함되어 있어 요인의 순수성과 간명성(parsimony)을 위해 이 요인을 삭제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이에 추가적으로 분석에 이용된 세 표본별로 척도구성 요인들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표 3에 나타나듯이, 5요인인 ‘자기소신’은 타 요인과의 상관지수 .10 미만인 15개 중 5개(33.3%)로 상관이 낮은 것이 많아 이 요인의 척도구성 타당성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확인적 요인분석 시 긍정성을 구성하는 6요인과 ‘자기소신’을 제외한 5요인의 척도구성 모형에 대한 적합도를 비교해보고 그 결과를 토대로 최종 척도의 구성요인을 확정하였다.

표 4.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표본별 척도구성 요인모형별 적합도(전체/일반/대학생)

표본 (n)	요인모형	χ^2	df	CMIN/df	NFI	CFI	TLI	RMSEA
전체 (774/500)	6요인	1488.77***	419	3.55	.83	.87	.84	.057
		1087.99***	419	2.60	.81	.87	.85	.057
	5요인(자기소신 제외)	1011.61***	289	3.50	.86	.89	.87	.057
		736.61***	289	2.55	.84	.90	.87	.056
일반 (401/249)	6요인	995.86***	419	2.38	.78	.86	.83	.059
		802.29***	419	1.92	.75	.86	.84	.061
	5요인(자기소신 제외)	645.11***	289	2.23	.83	.90	.87	.056
		512.69***	289	1.77	.80	.90	.88	.056
대학생 (373/251)	6요인	982.64***	419	2.35	.78	.86	.83	.060
		825.99***	419	1.97	.73	.84	.81	.062
	5요인(자기소신 제외)	675.73***	289	2.34	.82	.89	.86	.060
		596.49***	289	2.06	.76	.85	.82	.065

확인적 요인분석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확인하여 척도의 구성개념 타당도를 살펴보기 위해 전체표본과 이 표본에서 SPSS에 의해 무작위로 추출된 500명의 자료를 대상으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모수의 추정은 최대우도법(ML : Maximun Likelihood Method)이 사용되었다. 척도구성 요인모형의 부합도 지수는 전반적 부합지수인 카이제곱치와 그 확률치, 상대적 적합도 지수인 표준부합치(NFI : Normed Fit Index), 비교부합치(CFI : Comparative Fit Index), 표본크기에 덜 민감하고 모형의 간명성을 고려하는 비표준부합치(Non Normed Fit Index : NNFI or TLI), 그리고 개략화 오차(RMSEA :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이용하였다(Raykov, Tomer, & Nesselrode, 1991). 카이제곱치에 의한 합치도 평가가 표본 수에 민감한 점을 고려하여 카이제곱치를 자유도로 나눈 수치(CMIN/df)가 3이하일 때 모형수용이 가능하다는 점(Kline, 1998)도 함께 고려하였다.

표본별로 요인모형별 적합도를 분석한 결과는 표 4에 있다. 이를 통해 전반적으로 6요인 모형보다 ‘자기소신’ 요인을 제외한 5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5요인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합치도 평가기준이 되는 .90이나 그에 근접한 수준을 보였고 6요인 모형의 값보다 전반적으로 높았다. 개략화오차 평균값은 6요인과 5

요인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 .05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Hu & Bentler, 1999). 표 4를 보면, 특히 6요인 모형의 표준부합치(NFI) 지수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일반성인 집단과 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73에서 .78 사이로 만족스럽지 못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자기소신’ 요인을 제외하면 그 지수가 최소한 .80 이상으로 대부분 높아져 긍정성을 구성하는 척도 요인으로 5요인 모형이 보다 적절함을 시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무작위로 추출한 하위표본에서도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 분석결과에 좀 더 자신을 가져볼 수 있었다.⁷⁾

이상의 분석을 통해 최종적인 척도구성 요인으로 5요인, 즉 긍정관점인 다각화와 자기긍정성 2요인(자기수용, 자기조절) 및 사회긍정성 2요인(사회적응, 사회수용)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 긍정관점과 자기긍정성 또는 긍정관점과 사회긍정성으로 구성된 하위척도 3요인 모형의 적합도 분석을 표본별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가 제시된 표 5에 드러나듯이, 거의 모든 표본에서 두 모형 모두 비교부합치(CFI) 지수들이 .90 이상으로 나타나 모형적합도가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자기긍정성의 적합도 지수는 .90에서 .95 사이로 만족할만한 수준을 보였고, 사회긍정성의 적합도 지수는 그에 못 미치지만 적절하거나 수

7)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n=500)의 인구학적 특성은 본 논문 연구2의 조사대상에 간략히 언급되어 있다.

표 5. 확인적 요인분석에 의한 표본별 척도 하위모형별 적합도(전체/일반/대학생)

표본 (n)	3요인모형	χ^2	df	CMIN/df	NFI	CFI	TLI	RMSEA
전체 (774/500)	긍정관점/자기수용/자기조절	337.92*** 284.76***	101 101	3.35 2.81	.93 .91	.95 .94	.93 .92	.055 .060
	긍정관점/사회적응/사회수용	502.05*** 344.84***	116 116	4.33 2.97	.87 .87	.90 .91	.87 .88	.066 .063
일반 (401/249)	긍정관점/자기수용/자기조절	215.85*** 182.13***	101 101	2.13 1.80	.92 .90	.95 .95	.94 .93	.053 .057
	긍정관점/사회적응/사회수용	307.71*** 226.26***	116 116	2.65 1.95	.84 .84	.90 .91	.86 .89	.064 .062
대학생 (373/251)	긍정관점/자기수용/자기조절	252.29*** 216.15***	101 101	2.50 2.14	.90 .87	.94 .92	.91 .90	.063 .068
	긍정관점/사회적응/사회수용	311.70*** 277.65***	116 116	2.69 2.39	.85 .80	.90 .87	.87 .83	.067 .075

용 가능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략화오차 평균값은 자기긍정성과 사회긍정성 모두 모형의 적합도가 좋은 것으로 해석되는 .05에 근접하거나 비교적 그에 가까운 수준을 보였다.

요약하면, 탐색적 요인분석에서 밝혀진 요인구조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긍정성을 구성하는 6요인 모형과 순수성에 의문이 제기된 ‘자기소신’ 요인을 제외한 5요인 모형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6요인 모형보다 5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전체표본 뿐만 아니

라 일반성인과 대학생 하위표본 모두에서 우수하게 나타났다. 또한 긍정적 관점을 기반으로 한 자기긍정성 또는 사회긍정성 하위척도의 모형적합도도 적절하거나 수용가능한 수준을 보였다. 특히 긍정관점, 자기수용, 자기조절 3요인 모형으로 구성된 자기긍정성 하위척도의 적합도가 전반적으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근거하여 긍정적 태도 척도는 5요인 모형, 즉 다각화(7개 항목), 자기수용(6개 항목), 자기조절(3개 항목), 사회적응(6개 항목), 사회수용(4개 항목)에 해당되는 총 26개 항목으

표 6. 긍정적 태도 척도와 하위개념들 간의 상관계수 및 평균과 표준편차 (N=774/N=500)

	1	2	3	4	5	6
1. 긍정적 태도	-					
2. 다각화	.86/.86***	-				
3. 사회적응	.68/.67***	.42/.42***	-			
4. 사회수용	.66/.67***	.45/.47***	.33/.34***	-		
5. 자기수용	.81/.81***	.65/.66***	.36/.36***	.40/.39***	-	
6. 자기조절	.66/.67***	.55/.54***	.31/.32***	.30/.33***	.50/.51***	-
평균 ^a	4.11/4.09	4.59/4.58	3.78/3.77	4.08/4.02	4.34/4.33	4.22/4.20
표준편차	.67/.62	.78/.79	.81/.79	.98/.98	.83/.83	.91/.91

^a1. 거의/전혀 그렇지 않다; 2. 어느 정도 그렇지 않다; 3. 약간 그렇지 않다; 4. 약간 그렇다; 5. 어느 정도 그렇다; 6. 거의/전적으로 그렇다. / ***p<.001

로 구성되었다. 전체 및 하위요인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를 제시한 표 6을 보면, 상·하위 요인들 간의 상관이 모두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하였고, 전체척도와 하위요인 척도들 간의 상관계수 범위는 .66에서 .86으로 높았으며, 5 요인 하위척도들 간의 상관계수 범위는 .30에서 .66 사이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긍정과 사회긍정 요인들의 기반이 될 것으로 가정한 관점 다각화 요인과 이들 4개 하위 요인 간의 상관이 .42에서 .66 사이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이들이 밀접하게 연관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연구 2. 긍정적 태도 척도의 타당화

긍정적 태도 척도의 타당도는 변인들 간의 논리적 관계가 이론적 틀에 비추어 적절하게 나타나는지를 평가하는 구인타당도(construct validity)와 측정도구가 미래에 나타날 결과를 얼마나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예측타당도(predictive validity)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또한 제작된 척도의 유용성과 개인의 긍정성을 측정하는 유사척도와의 변별력을 알아보기 위해 증분타당도(incremental validity) 평가를 시도하였다. 구인타당도 평가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긍정성은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전제한다는 점에서 자기존중감과 정적 상관이 기대되었고, 긍정적 태도의 기반인 관점의 다각화가 자신에 대한 이해를 높일 것이라는 가정에 따라 사적 자기의식과도 정적 상관이 예측되었다. 둘째, 긍정적 관점에 기반 한 개인의 긍정성이 자신이나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촉진할 수 있어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과 자신감을 나타내는 희망감과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하였다. 더불어 긍정성이 사회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좋게, 바람직하게 평가되는 측면에 주목하는 인식성향으로 가정됨에 따라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와도 일정 부분 정적 상관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끝으로, 긍정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다양한 각도와 관점 및 시점에서 자기 자신, 자신과 타인, 세상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자기이해, 자기수용 및 만족, 자기조절, 사회적응, 사회수용 등을 촉진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긍정성은 개인의 공격성에서 비롯되는 분노와 같은 심리적 특성과 부정 상관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었다.

긍정적 태도 척도의 예측타당도 조사를 위해 심리사회적 안녕감 변수들과의 상관을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했듯이 관점의 다각화가 자기수용, 자기조절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응과 사회수용에 기여한다면, 이는 긍정적 정서를 촉진하는 한편 충동성, 공격성, 심리적 위축 등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어 적대감, 불안, 우울을 낮출 것으로 예측하였다. 사회적 안녕 측면에서는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 요인들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되어 사회적 안녕감을 높이는 한편 가족/대인관계 어려움 및 직장/이해관계 어려움과 부정 상관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끝으로, 증분타당도 평가의 논리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와 긍정적 태도 척도는 개인의 긍정성을 측정한다는 점에서 일관된다. 하지만 자존감은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평가의 정도를 측정하고, 긍정적 태도 척도는 그러한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 평가와 더불어 자신이 속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자신과 사회에 대해 긍정적으로 대처하는 정도를 엿볼 수 있는 자기조절과 사회적응 그리고 그러한 긍정적 태도의 기반이 되는 긍정적 관점을 함께 측정한다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구분된다. 따라서 이 두 변수가 독립변수로 고려된 분석에서 긍정적 태도 척도는 자존감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추가적으로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존감은 직무만족, 결혼만족 등 긍정적 정서의 경험을 촉진하고(현경자, 2004; Judge & Bono, 2001) 신체 및 심리적 스트레스를 조절하거나 낮추는 주요인으로 보고되고 있어(DeLongis, Folkman, & Lazarus, 1988), 기존의 자존감 척도와 긍정적 태도 척도는 긍정적 정서와 심리적 스트레스 변수들에 각각 기여할 것으로 예측하였고, 긍정적 태도 척도의 고유한 설명력은 자존감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였다.

조사대상

긍정적 태도 척도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 척도제작에 사용된 774명의 응답 자료와 확인적 요인분석 시 원표본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500명의 자료가 이용되었다. 이 하위 표본은 원 표본에 비해 대학생의 비율(48.2% vs. 50.2% 각각)이 다소 높았고,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일반성인의 비

율이 다소 높아진(30.9% vs. 32% 각각) 반면 대구지역 일반성인의 비율이 다소 낮은(20.9% vs. 17.8% 각각)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원 표본과 성별, 연령, 교육수준은 평균적으로 유사하게 나타났다.

측정도구

긍정적 태도 척도의 타당화 작업을 위해 구조화된 설문지가 작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자기특성 4개 항목(사적자기의식, 분노성향, 희망감, 자존감), 심리적 안녕 관련 4개 항목(긍정적 정서, 적대감, 불안, 우울), 사회적 안녕 관련 3개 항목(사회적 안녕, 대인/가족관계 어려움, 직장/이해관계 어려움) 그리고 사회적 바람직성 평가척도가 포함되었다. 각 변수의 측정은 다음과 같다.

사적 자기의식

사적 자기의식은 자신의 마음을 면밀히 살피고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의 자기 자신을 생각해보는 개인의 성향을 의미하며, Scheier와 Carver(1985b)의 자기의식 척도에 포함된 사적 자기의식 하위척도 9문항을 번안해 측정하였다. 이 척도에는 “문제를 해결할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안다,” “보통 내 감정에 유의한다,” “항상 내 자신을 이해하려고 노력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항목들이 묘사하는 개인적 특성이 자신의 성격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보고 4점 척도(예 : 0=전혀 나같지 않음, 3=매우 비슷함)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사적 자기의식척도 점수는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였고, 부정적으로 묘사된 항목은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적 자기의식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1이었다.

분노성향

분노성향 척도는 Buss와 Perry(1992 : Corcoran & Fisher, 1994에서 재인용, p.27)의 공격성 질문지(Aggression Questionnaire) 중 분노 하위척도에 해당하는 7문항을 번안해 사용했다. 항목의 예를 들면, “좌절감이 들면 짜증을 드러낸다,” “가끔 별 이유 없이 발끈할 때가 있다” 등으로 이 척도는 개인의 공격성이 어떻게 분노를 통해 나타나는지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항목들이 묘사하는 성격 특성이 자신과 얼마나

비슷한지 생각해보고 4점 척도(예 : 0=전혀 나같지 않음, 3=매우 비슷함)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분노성향 척도점수는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희망감

개인의 목표지향성과 미래에 대한 긍정적 시각의 정도를 살펴보기 위해 Snyder, Sympson 등 (1996)이 개발한 상태희망 척도(State Hope Scale)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8점 척도의 6문항으로 이루어져있고 “복잡한 상황에 처해 빠져나올 방법을 많이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열정적으로 내 목표를 추진하고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8점 척도를 4점 척도(예 : 0=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3=전적으로 그렇다)로 전환하여 사용하였고, 희망감의 척도점수는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희망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1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자기존중감

개인의 긍정적인 자기평가를 측정하기 위해 Rosenberg (1965)의 자기존중감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10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척도에는 “나는 내가 여러 가지 좋은 자질을 가졌다고 느낀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각각의 문항이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나타내는지를 생각해보고 4점 척도(예 : 0=전적으로 그렇지 않다, 3=전적으로 그렇다)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척도점수는 전체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였으며, 부정적으로 서술된 5개 항목은 역코딩을 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자존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자존감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83으로 우수했다.

긍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는 자신감, 기쁨, 즐거움, 상쾌함, 편안함 등의 감정으로 인한 긍정적 기분상태를 의미한다. 이홍철 (1994)이 개발한 ‘기분평정척도’에서 하위척도인 ‘긍정적 정서’ 척도 항목 5개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설문지에 열거된 긍정적 정서를 얼마나 자주 느꼈는지 생각해보고 4점 척도(예 : 0=거의/전혀 그렇지 않음, 3=거의 항상/늘 그랬음)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척도점수는 전체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치를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 정서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긍정적 정서의 신뢰도 계수는 .82로 우수하게 나타났다.

정서적 스트레스

정서적 스트레스는 적대감, 불안, 우울을 구분하여 측정하였으며, Derogatis(1983)가 개발한 간이 정신진단검사 개정판(Symptom Checklist-90-Revision : SCL-90-R)의 항목을 이용하였다. SCL-90-R은 9개 증상 차원을 측정하는 총 90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적대감 증상 6문항(예 : 고통을 지르거나 물건을 내던진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이 났다, 잘 다투었다), 불안증상 10 문항(예 : 별 이유 없이 깜짝 놀란다, 무슨 일이든 조급해서 안절부절 못했다), 그리고 우울증상 13 문항(예 : 기분이 울적했다, 식욕이 없어 먹고 싶지 않았다,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었다)을 사용하였다. 응답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열거된 증상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하였는지 생각해보고 4점 척도(예 : 0=거의/전혀 그렇지 않음, 3=거의 항상/늘 그랬음)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적대감, 불안, 우울 척도는 각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그러한 정서적 스트레스가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들의 신뢰도 계수는 적대감 .81, 불안 .85, 우울 .91로 모두 우수한 수준을 보였다.

사회적 안녕

사회적 차원의 안녕감은 Hyun(1995)이 개발한 관계적 안녕감(Relational Well-being) 척도에서 사회생활의 안녕감을 평가할 수 있는 문항 4개로 측정하였다. 예를 들면, “이 세상이 더디기는 하지만 나를 위해 점점 더 나아져 가고 있다고 느꼈다,” “사람들이 나를 한 인간으로서 가치 있게 여긴다고 느꼈다” 등이 포함되었다. 응답자들은 지난 한 주 동안 자신의 사회생활과 대인관계가 얼마나 문항의 내용과 일치하는지를 생각해보고 4점 척도(예 : 0=거의/전혀 그렇지 않음, 3=거의 항상/늘 그랬음)를 이용하여 평정하였다. 척도점수는 4개 항목에 대한 응답의

평균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안녕감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65로 나타났다.

사회관계로 인한 어려움

사회 속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일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를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하였다. 하나는 살아오면서 가족이나 주변인들과의 관계로 인한 어려움이고, 또 하나는 직장이나 이해관계로 인한 어려움으로 이들은 각각 단일 문항으로 측정되었다. 응답항목은 5점 척도(예 : 1=전혀 겪지 않음, 5=상당히 겪음)를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가 살아오면서 인간관계나 직장 등으로 겪은 어려움이 큼을 의미한다.

사회적 바람직성

개인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를 의식하여 보이는 성향은 Marlowe-Crown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Crown & Marlowe, 1960)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원척도의 33개 문항 중 한국 상황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되거나 의미 전달에 의문이 제기되는 항목 5개를 삭제하고 총 28개 문항이 이용되었다.⁸⁾ 척도 항목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 상할 말을 고의로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항상 실수를 기꺼이 인정한다,” “남에게 받아들이도록 권한 것을 실천하려고 항상 노력한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응답자들은 이러한 문항 내용이 자신을 잘 나타내는지 생각해보고 ‘예’와 ‘아니오’ 중에서 응답을 선택하였다. 척도점수는 응답의 총점을 이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바람직성을 의식한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 척도의 신뢰도 계수는 .74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인 및 예측타당도 평가를 위해 긍정적 태도 척도의 5요인과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예측타당도 평가의 경우, 긍정적 태도 척도의 예측 유용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임상세팅에서의 활용가능성을 평가해보기 위해 이 척도의 주요인

8) 삭제된 항목에는 “투표하기 전, 나는 모든 입후보자들의 자질을 철저히 조사한다,” “나는 어떤 사람을 극도로 싫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나는 곤란에 처한 사람을 돕기 위해 내 방식을 벗어나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는다” 등이 포함되었다.

표 7. 긍정적 태도 척도의 문항 변별도

(N=745)

요인	나는...	문항	문항-총점간 상관	평균	표준 편차
긍정 관점 다각화	1.	내 자신의 가능성을 믿고 즐겁게 생활하려고 한다.	.68	4.67	1.33
	2.	행복은 마음먹기에 달렸으므로 내 마음을 다스려 항상 긍정적인 생각을 한다.	.66	4.64	1.07
	3.	어려운 일이 닥치면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생각해보고 긍정적인 면에 의미를 둔다.	.64	4.43	1.02
	4.	어려운 일에 처하면 여러 각도에서 그 일을 살펴 긍정적인 측면을 찾는다.	.64	4.45	1.01
	5.	매사에 부정적이다.	.62	4.67	1.33
	6.	사소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52	4.76	.93
	7.	힘든 상황에 처하는 경우 한 가지 이상의 해결책을 생각해 낼 수 있다.	.43	4.60	1.00
자기 수용	8.	내 나름대로 그때 그때 상황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내 자신이 좋다.	.64	4.12	1.46
	9.	내 나름대로 의미있는 삶을 살고 있다.	.62	4.65	1.04
	10.	지나 온 날들을 돌아보면 나도 잘한 일이 있는 것 같아 뿌듯해진다.	.57	4.42	1.03
	11.	다른 사람들에 비해 성실하게 사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55	4.17	1.15
	12.	한 사람의 성인으로서 내 역할을 잘 해내고 있다.	.52	4.07	1.17
	13.	지금껏 잘못 살아온 것 같다.	.48	4.26	1.38
자기 조절	14.	속상한 일이 생겨도 내 자신을 잘 다스려 주위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53	4.24	1.12
	15.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내가 좋다.	.45	4.46	1.13
	16.	힘들거나 답답한 상황에서도 유머를 잃지 않는다.	.44	3.95	1.22
사회 적응	17.	이 세상이 노력하면서 사는 사람들에게 좌절감을 준다고 느낀다.	.44	3.77	1.32
	18.	이 세상 곳곳에서 터지는 여러 문제들로 인해 살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느낀다.	.41	3.27	1.28
	19.	내 인생의 목적인 바를 이 사회에서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39	4.16	1.36
	20.	우리 사회가 점차 다양해지는 것에 불안을 느낀다.	.38	3.93	1.39
	21.	빠르게 변하는 우리 사회에 내 자신을 맞추기가 어렵다.	.35	3.65	1.29
	22.	늘 새로운 것이 만들어지고 빠르게 변하는 이 세상이 흥미롭다.	.31	3.87	1.19
사회 수용	23.	내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49	4.04	1.14
	24.	문제가 많은 이 나라를 떠나면 좋겠다고 자주 생각한다.	.47	4.12	1.46
	25.	비슷한 사람들끼리 정을 나누고 사는 우리 사회가 좋다.	.43	4.37	1.07
	26.	뛰니 뛰니 해도 내가 태어나 살아온 이 나라가 최고라고 생각한다.	.35	3.78	1.53

인 긍정관점(다각화)와 자기긍정성(자기수용과 자기조절 통합) 및 사회긍정성(사회적응과 사회수용 통합) 요인들의 심리사회적 안녕 변수들 각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이 회귀분석에서는 긍정성의 핵심으로 가정된 관점의 다각화를 1단계에 투입하여 그 효과를 우선 검토하였고, 2단계에 자기긍정성과 사회긍정성을 추가로 투입하여 이들의 추가적인 설명력과 종속변인에 대한 긍정관점, 자기긍정성, 사회긍정성 각각의 효과와 상대적 기여도를 검토하였다. 끝으로 증분타당도 평가를 위해 자존감과 긍정적 태도의 상대적 기여도와 변별력을 살필 수 있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긍정적 정서

와 심리적 스트레스 관련 변수들(분노성향, 적대감, 불안, 우울)을 각각 종속변인으로 하고 1단계에 자존감을 투입한 후 2단계에 긍정적 태도를 추가적으로 투입하여 자존감에서 비롯되는 긍정성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종속변인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되는지를 조사하였다.

결 과

긍정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

이 연구를 통해 제작된 긍정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를

표 8.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 요인들과 자기특성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N=752/N=485)^a

척도 하위요인	자기 특성					
	사적 자기의식	분노성향	희망감	자존감	사회적 바람직성	
긍정 관점	다각화	.30/.31***	-.23/-.22***	.59/.57***	.60/.59***	.33/.31***
자기 긍정	자기수용	.29/.33***	-.24/-.22***	.63/.64***	.66/.65***	.29/.28***
	자기조절	.25/.27***	-.16/-.16***	.45/.45***	.48/.48***	.27/.25***
사회 긍정	사회적응	.19/.19***	-.19/-.20***	.40/.42***	.51/.50***	.17/.20***
	사회수용	-.03/.10*	-.17/-.17***	.23/.27***	.30/.29***	.21/.18***
기술 통계	평균	1.88/1.88	1.29/1.28	1.84/1.84	1.96/1.96	.47/.47
	표준편차	.48/.47	.63/.62	.45/.44	.49/.47	.16/.16

* $p < .05$, ** $p < .01$, *** $p < .001$ / *결측값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였음.

확인하기 위하여 본 조사에 참여한 집단들의 내적합치도, 검사-재검사 신뢰도, 문항-총점간 상관을 알아보았다. 긍정적 태도 척도 전체 26개 항목의 내적합치도, 즉 신뢰도 계수는 전체집단 및 무작위 하위집단 모두 .90으로 나타났고, 긍정적 태도 척도를 구성하는 하위요인들의 신뢰도 계수 범위는 전체 집단이 .68~.85, 무작위 하위 집단이 .66~.86으로 나타났다(다각화=.85, .86; 사회적응=.68, .65; 사회수용=.73, .72; 자기수용=.82, .81; 자기조절=.68, .66 각각). 재검사 신뢰도(r), 즉 상관분석은 1차 조사 종료 2주 후에 대구지역 대학생 집단의 일부($n=88$)를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전체척도의 신뢰도(r)는 .85, 각 요인별 신뢰도(r)는 요인1(다각화)=.88, 요인2(사회적응)=.84, 요인3(사회수용)=.81, 요인4(자기만족)=.83, 요인5(자기조절)=.86 이었다. 긍정적 태도 척도의 문항변별도, 즉 문항-총점간 상관분석은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표 7에 있다.⁹⁾ 이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전체 표본의 문항-총점간 상관은 .31에서 .68로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요인분석 결과에서 언급한 요인별 척도점수 상관의 범위와 거의 유사한 수준으로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긍정적 태도 척도의 신뢰도는 전반적으로 적절한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9) 원표본과 무작위로 추출한 표본($n=500$)의 분석결과가 유사하여 원표본의 결과만 제시하였다.

긍정적 태도 척도의 타당도

구인타당도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는 상이한 측정도구에서 얻어진 동일 개념 구성체에 대한 점수가 일치함을 보는 수렴타당도(convergent validity)와 상이한 개념구성체를 측정하는 두 측정 도구 간의 불일치를 살피는 판별타당도(discriminant validity)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검증 결과는 표 8에 있다. 예측대로, 척도를 구성하는 5개 하위요인 중 긍정관점 요인 다각화와 자기긍정 요인 2개, 즉 자기수용, 자기조절은 사적자기의식($rs=.25 \sim .33, ps < .001$), 희망감($rs=.45 \sim .64, ps < .001$), 자존감($rs=.48 \sim .66, ps < .001$)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분노성향($rs=-.16 \sim -.24, ps < .001$)과 는 부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긍정 요인 2개, 사회적응 및 사회수용도 자기특성 변수들 중 희망감($rs=.23 \sim .42, ps < .001$), 자존감($rs=.29 \sim .51, ps < .001$)과 정적 상관을 일관되게 보였고, 분노성향($rs=-.17 \sim -.20, ps < .001$)과 부적 상관을 보였으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 사회적응 요인은 사적 자기의식과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rs=.19, ps < .001$), 사회수용은 사적 자기의식과 관계가 없거나 정적관계의 강도가 낮게 나타났다($rs=-.03, .10, ps < ns, .05$ 각각). 더불어 긍정성 구성 요인들과 사회적 바람직성 척도도 예측대로 어느 정도의 정적상관을 보였고 그 범위는 .17에서 .33 사이로 유의미

표 9.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 요인들과 심리사회적 안녕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결과 (N=752/N=485)^a

척도 하위요인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긍정적 정서	적대감	불안	우울	사회적 안녕감	가족/대인 관계곤란	직장/이해 관계곤란
관점 긍정							
다각화	.50/.52***	-.39/-.39***	-.36/-.36***	-.50/-.50***	.47/.48***	-.16/-.13**	-.19/-.13***
자기 긍정							
자기수용	.53/.54***	-.33/-.33***	-.30/-.30***	-.47/-.47***	.51/.54***	-.21**/-.12*	-.17/-.12***
자기조절	.43/.45***	-.26/-.24***	-.25/-.23***	-.33/-.31***	.41/.46***	-.19/-.15**	-.23/-.18***
사회 긍정							
사회적응	.41/.40***	-.28/-.34***	-.26/-.31***	-.41/-.45***	.35/.36***	-.16/-.20***	-.19/-.15***
사회수용	.29/.31***	-.33/-.32***	-.26/-.25***	-.37/-.41***	.26/.28***	-.13/-.11*	-.10/-.08*
기술 통계							
평균	1.56/1.54	.48/.47	.66/.66	.79/.78	1.61/1.61	2.77/2.79	2.60/2.60
표준편차	.61/.62	.52/.50	.51/.50	.58/.58	.58/.58	.98/.98	.93/.90

* $p < .05$, ** $p < .01$, *** $p < .001$ / *결측값이 있는 사례를 제외하였음.

하였다($ps < .001$).

요약하면,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인타당도 조사 결과 사적 자기의식과 사회수용 요인 상관의 일부를 제외한 모든 관계가 예측과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났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제작된 척도의 수렴 및 판별 타당도가 적절한 것으로 볼 수 있었다. 특히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요인들 다수와 자존감의 상관은 .48에서 .66, 희망감의 상관은 .40에서 .63 사이로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긍정성과 개인의 긍정적 특성을 측정하는 이 두 개념의 수렴도가 예측대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다각화 및 자기긍정 요인들이 사회긍정 요인들보다 자기특성 변수들과 예측과 일관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상관을 보인 점도 수렴타당도의 적절성을 지지하는 예로 볼 수 있었다. 사회긍정 요인 중 사회적응은 자기특성 요인과 정적 상관을 적정 수준 이상 보였는데, 사회수용 요인은 사적 자기의식 변수와 상관이 낮거나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외 자기특성 변수들과의 정적 상관 정도도 유의미했지만 상대적으로 낮았다.

예측타당도

긍정적 태도 척도를 구성하는 다각화, 자기긍정, 사회긍정 요인들은 심리사회적 안녕 변수들과도 예측과 일관된 방향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다. 이 척도의 예측타당도 분석결과가 제시된 표 9를 보면,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 요인은 긍정적 정서($rs = .43 \sim .54$, $ps < .001$)와 정적으로 유의미한 상관을 보였고, 적대감($rs = -.24 \sim -.39$, $ps < .001$), 불안($rs = -.23 \sim -.36$, $ps < .001$), 우울($rs = -.31 \sim -.50$, $ps < .001$)과 예측대로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들 상관의 강도 범위는 .23부터 .50까지 비교적 폭 넓었으며, 모든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일관되었다. 사회긍정 하위요인들도 심리적 안녕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일관된 방향으로 보여주었다. 사회적응과 사회수용 요인은 각각 긍정적 정서와 정적 상관($rs = .29 \sim .41$, $ps < .001$)이 있었고, 적대감($rs = -.28 \sim -.34$, $ps < .001$), 불안($rs = -.25 \sim -.31$, $ps < .001$), 우울($rs = -.37 \sim -.45$, $ps < .001$)과는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한편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요인들과 사회적 안녕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도 예측과 일관되었고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다각화, 자기수용, 자기조절 요인은 사회적 안녕감($rs = .41 \sim .54$, $ps < .001$)과 정적 상관을 보였고, 가족/대인관계 어려움($rs = -.12 \sim -.21$, $ps < .05$) 및 직장/이해관계 어려움($rs = -.12 \sim -.23$, $ps < .01$)과 유의미한 부적 상관이 있었다. 이들 상관의 강도 범위는 .12부터 .53까지 폭 넓었는데 심리적 안녕 관련 변수들에 비해 관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이 많았으나, 모든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점에서 일관되었다. 사회적응 및 사회수용 요인들도 사회적 안녕 관련 변수들과 유의미한 상관을 일관된 방향으로 보여주었는데, 자기긍정성과 이

표 10. 긍정적 태도 척도 주요인들의 심리사회적 안녕감 변수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결과^a

예측요인	심리적 안녕감 사회적 안녕감												
	긍정적 정서		적대감		불안		우울		사회적 안녕		관계곤란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β	ΔR^2	
1단계	긍정관점	.50***	.25***	-.38***	.15***	-.37***	.14***	-.50***	.25***	.47***	.22***	-.20***	.04***
	(다각화)	.52***	.27***	-.38***	.15***	-.36***	.13***	-.50***	.25***	.48***	.23***	-.14***	.02***
2단계	자기긍정	.38***	.11***	-.10*	.04***	-.08	.03**	-.21***	.09***	.40***	.10***	-.21***	.03***
	사회긍정	.38***	.11***	-.06	.05***	-.08	.03***	-.17**	.10***	.46***	.13***	-.12*	.03***
		.18***		-.20***		-.18**		-.27***		.10**		-.10*	
		.15***		-.26**		-.19***		-.32***		.11**		-.14*	
	R^2	.36***/.38***		.19***/.20***		.17***/.16***		.34***/.35***		.32***/.35***		.07***/.05***	

* $p < .05$, ** $p < .01$, *** $p < .001$ / ^a단계별로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윗줄에 전체집단($n=720-774$) 아랫줄에 무작위집단($n=465-492$) 결과를 제시하였고, 결측값이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들 변수 간의 상관보다 그 강도가 오히려 낮은 것이 다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사회적 안녕과 정적 상관($rs=.26 \sim .36, ps < .001$ 각각)을 보였고, 가족/대인관계 어려움($rs=-.11 \sim -.20, ps < .05$) 및 직장/이해관계 어려움($rs=-.08 \sim -.19, ps < .05$)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요약하면,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요소들과 심리사회적 안녕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는 예측과 일관된 방향으로 나타나 척도의 예측타당도를 지지하였다.

긍정적 태도 척도를 구성하는 주요인인 긍정관점(다각화)와 자기긍정성(자기수용과 자기조절 통합) 및 사회긍정성(사회적응과 사회수용 통합) 요인들의 심리사회적 안녕 변수들 각각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는 표 10에 있다. 이 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본 연구에서 긍정성의 핵심으로 가정한 관점 다각화의 설명력이 1단계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 단일변수는 6개 종속변인 중 5개에 대하여 13%에서 27% 사이의 설명력을 보였고 사회관계(가족/대인/직장 등) 곤란에 대한 설명력만 2%에서 4%

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s < .001$).¹⁰⁾ 2단계에 투입된 자기긍정성과 사회긍정성은 최소 3%에서 최대 13%까지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였고($ps < .001$), 1단계에서 유의미했던 관점 다각화 효과의 일부 또는 상당량이 이들의 투입에 따라 사라져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긍정성 주요인들 간의 밀접한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긍정적 태도 척도의 주요인들이 심리사회적 안녕 변수들 각각에 기여하는 정도를 살펴보면, 긍정적 정서와 사회적 안녕의 경우 자기긍정의 기여도($\beta=.38 \sim .46, ps < .001$)가 다각화($\beta=.10, .14 \sim .17, ps < .10, .01$ 각각)와 사회긍정($\beta=.10 \sim .18, ps < .01$)의 기여도 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적대감, 불안, 우울에서는 다각화($\beta=-.20 \sim -.21, ps < .001$)와 사회긍정($\beta=-.18 \sim -.32, ps < .001$)의 감소 효과가 자기긍정($\beta=-.06 \sim -.08, -.10 \sim -.21, p=ns, ps < .05$ 각각)의 그러한 효과보다 거의 모두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더욱이 자기긍정의 불안 감소 효과는 예측과 일관된 방향이었으나 두 집단 모두에서 유의미하지 않았고, 무작위집단에서는 적대감의 감소 효과도 그런 특성을 보였다. 사회관계 곤란의 경우 다각화의 유의미한 감소 효과($\beta=-.14, -.20, ps < .001$)가 자기긍정과 사회긍정이 투입된 2단계에서 사라졌고, 자기긍정과 사회긍정은 예측대로 유의미한 감소 효과($\beta=-.10 \sim -.21, ps < .05$)를 보였으나, 무작위집단의 자기긍정 효과($\beta=-.12, p < .10$)는 거

10) 예측타당도의 상관분석에서 각각 살펴 본 가족/대인관계 곤란 및 직장/이해관계 곤란 변수는 사회관계 곤란 변수로 통합하여 단일변수로 회귀분석에 포함시켰다. 이들 관계곤란 변수들과 긍정성 5요인들 간의 상관 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다(표 9), 회귀분석 시 개별변수들에 대한 결과가 표 10에 제시된 통합변수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는 양상을 보여 통합변수의 결과를 제시하였다.

표 11. 자존감과 긍정적 태도 척도의 긍정성서 및 스트레스 관련 변수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 결과^a

예측요인	긍정적 정서		분노성향		적대감		불안		우울	
	β	ΔR^2	β	ΔR^2						
1단계 자존감	.55***	.31***	-.02	.00	-.40***	.16***	-.39***	.15***	-.57***	.32***
	.55***	.30***	.11*	.01*	-.40***	.16***	-.41***	.17***	-.55***	.31***
2단계	자존감		분노성향		적대감		불안		우울	
	.28***		.16***		-.19***		-.22***		-.32***	
	.26***	.07***	.28***	.11***	-.19***	.04***	-.26***	.04***	-.29***	.07***
	.39***	.09***	-.37***	.13***	-.30***	.05***	-.25***	.02***	-.36***	.08***
긍정태도		분노성향		적대감		불안		우울		
.42***		-.41***		-.30***		-.22***		-.38***		
R^2		R^2		R^2		R^2		R^2		
.38***/.39***		.11***/.14***		.20***/.21***		.19***/.19***		.39***/.38***		

* $p < .05$, ** $p < .01$, *** $p < .001$ / ^a단계별로 예측요인에 대한 분석결과는 밑줄에 전체집단($n=765-774$) 아랫줄에 무작위집단($n=492$) 결과를 제시하였고, 결측값이 있는 사례는 분석에서 제외하였음.

의 유의미한 수준이었다.

요약하면, 심리사회적 안녕 변수들 각각에 대한 긍정적 태도 척도 주요인들의 상대적 기여도는 종속변수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구체적으로 관점의 다각화와 사회공정이 자기긍정 보다 공격성, 불안 등 부정적 측면을 낮추는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자기긍정은 긍정적 정서 및 사회관계 안녕 등 긍정적 측면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컸다. 하지만 전반적인 분석결과가 거의 대부분 예측과 일관되게 나타나 앞서 보고한 상관분석 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증분타당도

긍정적 태도 척도의 증분타당도 검토 결과는 표 11에 있다. 이 표에 나타나듯이, 자존감은 1단계에서 긍정적 정서와 스트레스 관련 변수들에 대해 15%에서 32% 사이의 매우 높은 설명력을 보였고($ps < .001$), 분노성향에 대한 설명력만 유일하게 전무하거나 1%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2단계에서 긍정적 태도를 추가로 투입한 결과, 그러한 자존감의 효과가 많은 부분 사라졌고, 긍정적 태도는 최소 2%에서 최대 11%까지의 추가적인 설명력을 보였으며 모두 유의미했다($ps < .001$). 이러한 결과는 개인의 긍정성을 측정하는 두 변수 간의 밀접한 연관성과 긍정적 태도 척도의 변별력을 동시에 보여주어 의미가 있었다. 이 두 변수의 종속변인들 각각에 대한 상대적 기여도를 알 수 있는 2단계의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긍정적 태도 척도의 기여도가 자존감 척도의 기여도 보다 크게

나타났다.¹¹⁾ 더욱이 긍정적 태도는 예측과 일관되게 긍정적 정서를 촉진하였고($\beta = .39, .42, ps < .001$) 분노성향, 적대감, 불안, 우울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것($\beta = -.22 \sim -.41, ps < .001$)으로 나타난 반면 자존감의 그러한 효과는 분노성향을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에서만 나타났다($\beta = .26 \sim .28, -.19 \sim -.32$ 각각, $ps < .001$). 자존감은 긍정적 태도 척도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오히려 분노성향과 정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전체집단에서 보였고 무작위집단에서는 그 효과가 더욱 커져($\beta = .16, .28$ 각각, $ps < .001$) 자존감이 높을수록 분노성향 또한 높아짐을 유추할 수 있었다. 요약하면, 긍정적 태도 척도의 증분타당도 평가결과는 예측대로 긍정적 정서 및 스트레스 관련 변수들에 대한 자존감의 효과를 통제하고도 긍정적 태도의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됨을 보여주어 제작된 척도의 증분타당도가 적절함을 시사하였다.

결론적으로,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요인들과 자기특성 변수들 및 심리사회적 안녕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 결과는 거의 모두 예측과 일관되게 나타났다. 5개 요인 중 긍정관점 다각화와 자기긍정 요인들, 자기수용, 자기조절, 그리고 사회공정 요인 중 사회적응은 관련 변수들과의 상관이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고, 사회수용은 관계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 발견되었으나, 전반적으로 볼 때 본 연구에서 제작한 긍정적 태도 척도의 타당도는

11) 불안에 대한 무작위집단에서의 결과만 유일하게 자존감의 효과($\beta = -.26$)가 긍정적 태도의 효과($\beta = -.22$)보다 컸는데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욱이 긍정적 태도 척도 주요인들(긍정관점, 자기긍정, 사회긍정)의 예측타당도를 평가한 결과도 상관분석 결과와 거의 대부분 일관되었고, 증분타당도 평가를 통해 긍정적 태도 척도가 기존의 자존감 척도와 효과 및 설명력에서 구별됨을 확인할 수 있어 제작된 척도의 타당도에 보다 자신감을 가져볼 수 있었다.

논 의

본 연구는 역경에서나 일상생활에서 자신과 사회에 대하여 긍정적인 태도와 시각을 유지하도록 돕는 개인의 긍정성과 그 구성요인들을 탐색하여 밝히고 그러한 긍정성의 측정도구를 제작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긍정성의 개념화를 위해 기존의 자기긍정성 관련 척도 및 문헌과 강점 중심 임상개입 이론 등을 검토한 결과 개인의 긍정성 평가는 문화적 가치와 지향점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는 자존감에 한정되지 않은,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개념에 근거해야 하며, 긍정성의 개념화 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살필 수 있는 인지적 특성과 그로 인해 발달하거나 강화되는 긍정적 태도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함께 측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긍정성을 자신과 자기가 속한 사회를 다각도로 살펴 긍정적인 측면에 주목하고 의미를 부여하는 인지적 성향, 즉 관점의 다각화와 그에 따라 촉진되는 개인의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로 정의하였다. 이 연구에서 긍정성의 동력이 될 것으로 가정할 관점의 다각화는 개인의 의미발견이나 의미창조(또는 의미부여)를 도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삶, 자기가 속한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 발견과 의미 부여를 보다 쉽게, 보다 빈번히 그리고 보다 많은 측면에서 할 수 있게 하므로 자기수용, 자기소신, 자기조절을 촉진시키는 한편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적응을 도모할 것으로 보였다. 이러한 긍정성의 개념화는 기존에 시도되지 않은 것으로 이를 통해 본 연구의 가정에 기반한 긍정적 태도 척도가 기존의 자기긍정성 평가척도와 개념적으로 차별화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도한 긍정적 태도 척도의 제작 및 타당화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긍정적 태도 척도의 제작 및 타당화

항목개발 및 예비조사를 거쳐 실시한 본조사 자료로 탐색적 요인분석을 한 결과 예측대로 6개의 하위요인이 나타났다. 이들은 크게 긍정관점, 즉 관점 다각화 요인과 자기긍정성 - 자기수용, 자기소신, 자기조절 요인 및 사회긍정성-사회적응, 사회수용 요인으로 구분되었다. 이 중 ‘자기소신’ 요인에 부하된 항목들이 다른 요인들에도 중복 부하된 경우가 많이 발견되어 척도구성 요인의 순수성과 간명성 원칙에 따라 재검토가 이루어졌고, 확인적 요인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가정한 긍정성 6요인보다 ‘자기소신’ 요인을 제외한 5요인의 적합도가 우수하게 판명되어 최종적으로 ‘자기소신’ 요인을 척도구성에서 제외하였다. 따라서 제작된 긍정적 태도 척도는 긍정관점인 다각화와 자기긍정성 2요인(자기수용, 자기조절) 및 사회긍정성 2요인(사회적응, 사회수용) 총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긍정관점과 자기긍정성 또는 긍정관점과 사회긍정성으로 구성된 하위척도 3요인 모형의 적합도가 우수하거나 수용 가능한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하위척도들의 독자적인 활용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측대로 척도구성 요인들 간에는 주의깊음(mindfulness) 이론(Langer, 1992, 2000)이나 자기(self)이론(Baumeister, 1998)이 시사한 정적상관이 일관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관점의 다각화는 자기수용, 자기조절, 사회적응 및 사회수용 요인 각각과 이 네 요인들 간의 상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적상관을 일관되게 보여 긍정성을 구성하는 핵심요인이 될 것이라는 가정을 지지하였고, 자기수용과 자기조절, 그리고 자기수용과 사회수용 및 사회적응 간의 정적상관도 유의미하였다.

제작된 긍정적 태도 척도의 타당도 평가를 위해 자기특성 변수들과 심리사회적 안녕 관련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그 결과 역시 척도의 구인타당도와 예측타당도를 전반적으로 지지하였다. 예측대로 관점의 다각화를 포함한 긍정성 구성요인들은 사회수용을 제외하고 사적 자기의식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보였고, 희망감, 자존감 등의 긍정적 자기특성과 비교적 높은 정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러한 긍정성은 분노와 같은 공격적 성향과 예측대로 부적 상관을 보여 척도의 구인타당도에 대한 자신을 가져볼 수 있다. 또한 긍정성의 구성요인들은 긍정적 정서를 촉진하고 적대감, 불안, 우울 등의

부적 정서를 낮출 것이라는 가정과 사회적 안녕과 가족, 대인 및 사회관계를 긍정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는 예측에 일치하는 상관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대와 달리 상관의 강도 측면에서 관점의 다각화와 자기긍정성이 사회긍정성 보다 사회적 안녕감에 정적으로 기여하는 정도가 컸고, 가족, 대인, 직장 등 사회관계 곤란에 미친 효과도 그와 유사한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조절 능력과 긍정적 자기평가가 원만한 사회생활과 성공에 기여함을 보고한 기존연구들을 지지하며(Banaji & Prentice, 1994; Brockner, 1984) 그러한 자기긍정성이 사회적응에 대한 자신감이나 사회수용 보다 대인관계 차원의 안녕감에 있어 중요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한편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적 안녕감 측정 도구의 적절성에 대한 의문도 가져볼 수 있다. 사회적 안녕감의 경우 기존의 관계적 안녕감 척도에서 사회생활의 안녕감에 보다 부합하는 항목들이 선택되었고, 가족 및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직장 및 이해관계의 어려움 측정에는 단일문항이 각각 사용되어 앞으로 사회적 차원의 안녕감을 보다 적절히 반영하는 문항제작이나 측정도구 선택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확인되어야 한다.

긍정적 태도 척도의 임상적 활용가능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가능해보기 위해 주요인인 긍정관점, 자기긍정성, 사회긍정성의 심리사회적 안녕 변수들에 대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도 주요인들의 예측타당도와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자신을 심어준다. 특히 관점의 다각화와 사회긍정은 공격성, 불안 등 부정적 정서를 낮추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고, 자기긍정은 긍정적 정서 및 사회관계 안녕 등 긍정적 측면을 촉진시키는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이를 근거로 임상적 개입의 방향도 추론해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적대감과 같은 타인지향적인 부적정서와 근원이 불확실한 걱정이나 내적갈등으로 인한 불안 감소에 관점의 다각화와 사회적응 및 사회수용을 돕는 개입이 보다 유효할 수 있고, 유연한 사고와 친사회적 행동을 촉진하는 긍정적 정서(Fredrickson, 2000)의 양성과 사회관계적 안녕감 증진에는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을 돕는 개입이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예측대로 긍정적 태도 척도는 수렴타당도 평가를 위한 상관분석에서 Rosenberg(1965)의 자존감 척도와 높은 상관을 보였으나, 증분타당도 검토를 위한 위계적 회귀분석

에서 자존감 척도와 구별되는 효과와 유의미한 설명력을 보여주었다. 뿐만 아니라 이 척도는 종속변수인 긍정적 정서 및 심리적 스트레스 변수들에 대한 영향력이 자존감 척도 보다 전반적으로 큼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제작된 척도의 변별력과 증분타당도에 대한 자신을 일단 가져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결과는 분노성향에 대한 자존감의 효과가 긍정적 태도 척도의 효과를 통제했을 때 정적으로 유의미해지거나 더 커졌다는 점이다.¹²⁾ 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 중 긍정적 태도와 중복되는 부분의 자존감 특성을 통제하면 자존감이 높을수록 분노성향이 높아짐을 의미하는 결과라 흥미롭다. 이러한 결과는 서론에서 논의된 자존감 측정도구의 한계들, 특히 자기긍정에 이르는 경로나 근원을 간과한 긍정성 측정방식과 실제의 성취에 기반하지 않은 높은 자존감은 자아 위협을 느낄 때 대인폭력 등과 같이 자신과 타인에게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연구보고(Baumeister, 1998) 등을 다시 생각해보게 한다. 이처럼 예측과 상반된 결과를 일부 보여준 자존감 척도에 비해 긍정적 태도 척도는 모든 종속변수들에 대해 예측과 일관되는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어 고무적이다.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개발을 시도한 긍정적 태도 척도는 요인분석 결과에 따라 긍정관점인 다각화와 자기긍정성 2요인(자기수용, 자기조절) 및 사회긍정성 2요인(사회적응, 사회수용) 총 5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또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긍정관점과 자기긍정성 또는 긍정관점과 사회긍정성으로 구성된 하위척도 3요인 모형의 독자적인 활용이 가능함을 시사하였다. 제작된 긍정적 태도 척도의 타당도 조사결과,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구인, 예측, 증분 측면의 타당도가 적절하게 나타나 향후 이 척도를 이용하여 긍정성의 영향력, 효과 등을 구성요인 전체 또는 영역별로 규명하는 작업이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본다.

종합논의

본 연구는 개인의 긍정성을 보다 포괄적으로 보편적인

12) 이러한 결과가 긍정적 태도 척도의 주요인별 분석에서도 일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추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집단 및 무작위집단 모두에서 다각화($\beta_s = -.13, ps < .05$), 자기긍정성($\beta_s = -.20, -.22, ps < .001$ 각각), 사회긍정성($\beta_s = -.11, -.12, ps < .05$ 각각)은 분노성향을 유의미하게 낮추는 효과를 보였고 반면 자존감은 분노성향을 유의미하게 높이는 효과($\beta_s = .16, .28, ps < .001$)를 보였다.

차원에서 개념화하고, 긍정성의 근원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긍정적 태도의 특성을 반영한 척도제작을 시도하여 개인의 긍정성이 갖는 효과를 새롭게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를 통해 제작된 긍정적 태도 척도가 기존의 긍정성 측정도구와 어떤 점에서 차별화되며 이러한 척도개발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긍정성을 구성하는 요인들, 즉 관점의 다각화와 같은 인지성향적 요소, 자기수용 및 자기조절과 같은 개인적 요소, 사회수용 및 사회적응과 같은 사회적 요소들 간의 유기적 연관성을 고려하여 이들이 함께 측정될 수 있도록 제작되었으며, 이는 자기긍정성 측정을 위해 긍정적 자질이나 속성만 단순히 측정하는 기존 척도들에 비해 진일보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한 증분타당도 분석결과도 이러한 척도의 차별성을 지지하고 있다. 둘째,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요인들은 이론적 배경에서 살펴본 주의깊은 이론 및 연구결과(Brown & Langer, 1990; Carson & Langer, 2006; Langer, 1992, 2000)와 자기의식, 자기지식 등 자기(self) 이론 및 연구결과(Baumeister, 1998; Carver & Scheier, 1981; Higgins, 1987, 1996)에 의해 지지되는 요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경험적 자료분석 결과 또한 그러한 개념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척도 구성요인의 논리적, 이론적, 경험적 타당성에 자신을 가져볼 수 있다. 끝으로, 연구대상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계층과 연령에 속하는 일반 성인들의 경험과 응답을 조사에 고려하여 향후 다양한 대상들에게 이 척도를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척도개발을 위한 요인분석을 전체, 일반성인, 대학생 집단으로 나누어 긍정적 태도 척도의 구성타당도와 표본들 간의 요인구조 유사성을 검토하여 결과에 대한 자신감을 높이고¹³⁾ 앞으로의 연구에서 발달적 맥락의 고려가 중요함을 시사하는 결과를 발견한 점은 의의가 있다. 예를 들면, 전체집단의 분석결과에서 1요인부터 6요인까지 예측과 일관되게 나타났지만, 긍정적 태도를 가장 많이 설명하는 첫 번째 요인으로 일반성인 집단에서는 관점

다각화 요인이 그리고 대학생 집단에서는 자기수용 요인이 추출되었고, 이 두 요인은 역으로 대학생 및 일반성인 집단에서 각각 열 번째 요인으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나 이러한 차이가 조사대상자의 생애경험이나 발달적 이슈와 연관되는지를 생각해볼게 된다.¹⁴⁾ 일반성인 집단은 사회생활 및 결혼생활을 통한 부침과 다양한 사회적 요구를 경험했을 수 있어 자신과 세상에 대한 통찰력이나 여러 입장과 시점에서 생각해보는 인지적 성향이 대학생 집단에 비해 발달되었을 수 있고 그로 인해 자신이나 삶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¹⁵⁾ 반면 대학생들은 사회생활이나 삶의 경험이 한정되고 다양한 사회적 요구에 접하기보다 진로결정 등 자기중심적으로 삶이 전개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 관점의 다각화를 통한 의미발견이나 의미부여 역량이 제한적일 수 있으며 이들의 긍정성은 오히려 자기수용과 같이 자기에 초점을 둔 요인에 의해 보다 많이 설명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러한 추정이 타당하다면, 대학생들 또는 일반 성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척도개발 연구는 그러한 성인기의 생애경험과 발달단계의 차이로 인한 특징을 간과하여 유용성과 타당성의 한계가 큰 척도를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자기 자신과 세상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살필 수 있는 인지성향으로 관점의 다각화라는 새로운 개념이 소개되었다. 이 연구에서 개인의 긍정성은 자기긍정과 사회긍정을 아우르는 개념으로 그러한 긍정성의 기반이 되는 관점의 다각화와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있을 때

13) 전체/일반성인/대학생 집단 모두에서 6요인에 의한 설명량은 46.6% 내외로 거의 일치하게 나타났고, 최종적으로 5요인을 제외한 설명량도 40~43% 이상으로 이는 요인구조의 추출변량이 40%-50% 일 때 구성요인들의 결합된 영향력이 실질적이라고 본 Gorsuch(1983)의 기준에 부합한다.

14) 일반성인 집단은 평균연령이 36.47($SD=8.54$)세로 주 연령대인 30대(46.63%), 40대(21.7%), 50대(8.23%)가 전체의 76.56%를 차지하였고, 대학생 집단은 평균연령이 21.85($SD=2.49$)세로 무응답 비율을 제외하면 10대 후반(17.96%)과 20대(79.62%)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 시점에서 조사한 연령대가 다른 두 집단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발달적 이슈를 논하는 것에 한계가 있지만 성인기의 생애경험과 개인의 긍정적 태도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은 가져볼 수 있다.

15) Ryff(1991)의 연구를 보면 청장년층에서 나이와 더불어 개인의 이상적 자기상과 현실적 자기상의 괴리가 줄어 자기수용이 용이해지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일반성인 집단의 경우 자기수용을 통한 긍정성을 기대해볼 수 있는데 실제로 이 집단에서 자기수용 요인의 설명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이는 다각화 요인의 설명력을 제외하고 자기수용 요인이 추가하는 설명량을 의미하는 것으로 두 요인의 척도 점수 상관성이 높은 것($r=.65$)과 연관되어 보인다.

개인의 삶이 바람직하게 변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였다. 관점의 다각화가 자기긍정이나 사회긍정을 촉진하고 그러한 자기긍정이나 사회긍정이 관점의 다각화를 격려하는 상호적인 영향을 가정해볼 수 있지만, 낙천적이거나 긍정적인 성품으로 자기긍정이나 사회긍정이 강한 것이 관점의 다각화를 촉진할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이 연구에서는 관점의 다각화를 긍정성의 핵심으로 간주하였다. 제작된 긍정적 태도 척도는 그러한 인지성향에 기반한 긍정성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므로 긍정성의 근원과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잠재울 수 있고 기존의 자기긍정성 척도, 특히 앞서 논의한 자존감 척도들이 보여준 한계(김동직, 한성열, 1998; 차경호 외, 2006; Baumeister, 1998; Crocker & Park, 2004)를 극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존의 자존감 척도들이 서구에서 제작됨에 따라 서구사회에서 강조되고 양성되는 독립적인 자기(independent self)에 기반하고 있는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는데(조공호, 2003; Heine et al., 1999),¹⁶⁾ 본 연구에서 제작된 긍정적 태도 척도는 그러한 특정 자기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과 환경의 적합을 고려한 사회적응 및 사회수용 요인까지 고려하여 독립적 자기의식보다 상호 의존적 자기의식이 강한 한국인들(현경자, 2004; Hyun, 1995)의 긍정성 측정과 그 효과를 밝히는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이 제작된 척도를 이용하여 자신이나 사회에 대한 긍정적 태도를 갖게 되는 경로, 즉 긍정성의 심리적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가능하여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이상에서 논의된 긍정적 태도 척도는 어떤 점에서 한국적이고 어떤 점에서 보편타당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 이 연구는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개인의 긍정성을 자존감과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과 대처 자세를 보여주는 긍정적 태도에 초점을 맞추어 보다 포괄적이고 보편적인 차원에서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따라서 어느 문화권에서나 본 척도의 구성요인들, 관점의 다각화로 대표되는 긍정적 관점, 자기수용과 자기조절에 기반한

자기긍정성, 사회수용과 사회적응에 기반한 사회긍정성이 긍정적 태도의 필수요인으로 보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하지만 그러한 긍정적 태도를 측정하는 항목들의 내용은 한국인의 심성과 의미체계 및 사회문화적 경험을 최대한 반영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한국적인 특성을 갖고 있다. 한 예로, 자기수용 요인에 최종적으로 부하된 항목들의 내용을 보면 우리 사회문화에서 강조되고 의미있게 여기는 특성 및 표현들, 예를 들면, “성실”, “상황에 맞게 열심히 살아가는”, “성인으로서의 내 역할을 잘 해내고” 등을 발견할 수 있는데, 이런 특성 및 표현들은 서구의 자기수용 척도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¹⁷⁾ 서구에서 개발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자기수용 요인 항목들을 보면(Ryff, 1989 :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에서 재인용), 8개 항목 중 2개 항목이 “성취”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그 외 “성격”, “자부심과 자신감”에 초점을 맞춘 것이 각각 1개씩 발견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개인주의 문화권에서 발달하는 독립적 자기성향과 보다 밀접하게 관련되며(Markus & Kitayama, 1991) 본 연구에서 제작된 긍정적 태도 척도의 자기수용 요인에서는 거의 나타나고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도 조사 설문지에 “능력이나 자질 면에서 장점이 있다”,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 나도 성취한 것이 있다”와 같이 개별적 자기에 초점을 맞춘 문항들을 포함시켰으나 이들은 최종적으로 긍정성 요인들에 부하되지 않았다. 이처럼 척도제작 과정에서 한국의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의미 있게 평가되는 긍정적 성향들이 걸려져 성인 한국인들의 긍정성을 평가하는 측정도구로서 본 척도의 효용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긍정적 성향은 역경에서나 일상생활에서 빛을 발휘하는 특성으로 간주되어 그러한 긍정성을 구성하는 요인들에 대한 탐색은 이론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임상적인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Steel(1988)에 따르면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실패나 어려움 속에서도 좌

16) 한 예로 Rosenberg(1965)가 개발한 자기존중감 척도는 독립적 자기해석과 유의미한 정적상관을 보이는 한편 상호의존적 자기해석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Heine et al., 1999).

17) 긍정적 태도 척도를 구성하는 5요인 중 유일하게 자기수용 요인은 Ryff(1989)가 제작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하위요인으로 들어 있어 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었다. 관점 다각화, 사회적응, 사회수용, 자기조절 요인들은 항목내용을 비교해볼 수 있는 서구의 척도들을 발견하지 못했다. Ryff의 척도는 차경호 등(2006)이 제작한 자존감 척도와 .68의 높은 상관을 보일만큼 개인의 긍정성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어 비교가 가능하다고 보았다.

절하지 않고 잘 기능하며, 자신을 낮게 평가하는 사람보다 자원을 많이 갖고 있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는 것으로 나타나고, 자신에 대한 호의적인 견해는 일의 성취나 역경 극복에 필수적인 내구력(persistence) 등 자기조절을 요하는 특성들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iggins, 1996). 따라서 개인의 긍정성은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성장하도록 돕는 탄력성(resilience)의 주요인으로 그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으며, 긍정적 태도 척도는 스트레스와 대처의 개인차를 설명할 수 있는 개인특성 요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면, 긍정적 태도는 심리적 자원으로 스트레스의 효과를 직접 조절하거나 긍정적 정서 등의 심리적 자원을 양성하는 변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특히 이 연구를 통해 소개된 관점 다각화의 조절효과나 자기수용, 자기조절, 사회적응, 사회수용을 통한 매개효과를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 의의 또한 클 것으로 생각된다.

이 연구에서 탐색해 본 긍정성의 구성요인들은 사람들 간에 차이를 보이는 개인특성이기는 하나 임상적 개입을 통해 양성되거나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척도의 임상적 유용성을 논의할 만큼 경험적 자료가 축적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¹⁸⁾ 앞으로 가정폭력, 이혼, 중도장애 등 생애위기를 경험한 사람들, 청장년층만 아니라 은퇴 후의 적응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까지 폭 넓은 계층을 대상으로 강점중심의 임상적 개입이 실제로 개인의 긍정성을 양성하고 강화시키는지 평가하는데 본 척도가 활용되어 그 유용성이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연구의 한계점 및 제언

이 연구에서 개발된 긍정적 태도 척도는 그 신뢰도, 내용타당도, 구인 및 예측타당도, 증분타당도 등 심리측정

속성 상 양호한 측정도구로 볼 수 있고, 일반 대학생뿐만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의 성인들이 조사에 참여하여 척도의 적용대상 폭이 넓다는 이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척도의 검증과 유용성 확인 작업 등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신중한 평가와 활용이 이 시점에서는 요구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과 추후 연구방향을 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긍정적 태도 척도의 개발을 위해 서울 및 수도권과 대구지역의 대학생, 일반인들 다수를 조사 대상으로 활용하여 척도 적용대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한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으나, 척도 제작과 타당화 작업에 좀 더 다양한 표본을 사용하지 못한 한계점을 갖고 있다.

둘째, 긍정적 태도 척도의 타당도 검증 시 개인의 긍정성을 구성하는 요인들 다수가 희망감이나 자존감과 비교적 높은 상관을 보여 이 연구에서는 증분타당도 검토를 일부 시도하여 본 척도가 기존의 자존감 척도와 효과 및 설명력에서 구분됨을 확인하였지만 그러한 긍정적 특성과의 변별력을 살피는 후속작업이 앞으로 더 많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이 연구의 증분타당도 평가에 고려된 긍정적 정서나 심리적 스트레스 변수들 외에 이론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종속변인들 - 학업 및 직업성취, 문제해결, 직무수행 및 직무만족, 결혼만족, 스트레스 대처, 목표달성 등을 이용한 검토도 척도의 유용성을 확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작된 긍정적 태도 척도와 희망감 또는 자존감의 효과 및 영향력에 있어 어떤 유사점과 차이점이 있는지를 살피는 연구가 다양한 대상과 임상적 개입을 요하는 치료 세팅 등에서 실시되어 본 척도의 활용 범위와 고유한 효과가 보다 체계적으로 규명되어야 한다.

셋째, 이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대학생과 지역사회 저소득층을 포함한 일반인 대상으로 자료가 수집되었으므로 차후 연구에서 긍정적 태도 척도의 임상적 유의성과 개입에 의한 민감성 등에 대한 경험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일반인들의 자기긍정성과 사회긍정성 및 관점 다각화가 어떠한 방식으로 심신기능과 연관되며, 임상세팅에서 도움을 요하는 클라이언트에 대한 강점중심 개입이 자기긍정성과 사회적응 및 사회수용에 대해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도 검토되어야 한다.

넷째,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혼으로 인한 가

18) 해결중심모델을 이용하여 가정폭력 가해자 및 피해자에게 집단상담과 개인상담을 각각 제공하는 과정에서 본 연구에 보고된 척도의 일부요인들이 효과성 평가에 활용되었으나 임상개입의 기간이 짧아 개입 전과 후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이 유일한 시도도 척도의 임상적 활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현재로서는 없으며 이 연구의 결과도 아직 발표되지 않아 본 연구자를 통해서 얻을 수 있다.

족해체가 보다 빈번히 일어남(조혜자, 방희정, 1998)을 고려할 때 긍정적 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의 스트레스 극복과 결혼생활 안정에 기여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특히 결혼생활에 대한 헌신을 강화시키는 결혼만족이 경제적인 곤란을 겪는 부부들의 결혼안정에 중요하게 나타나고(현경자, 2008), Burpee와 Langer(2005)의 연구에서 주의 깊음(mindfulness)이 결혼만족을 예측하는 주요인으로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분석에 고려된 다른 어떤 변수들보다 결혼만족과 높은 정적상관을 보여 긍정적 태도의 구성요인들과 결혼만족 간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개념화한 긍정성이 예측대로 개인의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면, 그러한 긍정성을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요인들의 규명 또한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특히 이 연구에서 긍정성의 핵심으로 간주된 관점의 다각화를 촉진하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인을 밝히는 작업이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본다.

참 고 문 헌

김동직, 한성열 (1998). 개별성-관계성 척도의 제작과 타당화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2(1), 71-93.

김명소, 김혜원, 차경호 (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9-39.

박병기, 홍승표 (2004). 주관적 안녕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교육심리연구*, 18(3), 159-175.

박선영 (2008). 배우자폭력 여성 피해자의 긍정성과 역기능성에 대한 해결중심 개별상담의 효과연구. *한국가족복지학*, 13(3), 5-27.

이홍철 (1994). 정서상태가 기억수행 및 주의편향에 미치는 효과. *고려대학교 박사학위청구논문*.

조공호 (2003). *한국인 이해의 개념*. 서울 : 나남출판.

조혜자, 방희정 (1998). 사회경제적 변화가 가족에게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3(1), 1-16.

차경호, 홍기원, 김명소, 한영석 (2006). 한국 성인의 자존감 구성요인 탐색 및 척도개발. *한국심리학회지 : 일*

반, 25(1), 105-139.

최상진 (2000). *한국인 심리학*. 서울 : 중앙대학교 출판부.

한유화, 정진경 (2007). 2요인 자아존중감 척도 : 개인주의적 및 집단주의적 요인.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1(4), 117-131.

현경자 (2004). 기혼남녀의 자기관과 결혼만족의 관계 : 독립 및 상호의존적 자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56(4), 239-268.

현경자 (2008). 저소득층 부부들의 경제적 스트레스와 부부갈등 및 결혼결과 : 탄력적 대응을 돕는 기혼자의 자기해석.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22(3), 49-79.

Banaji, M. R., & Prentice, D. A. (1994). The self in social contexts. In L. Porter & M. Rosenzweig (Eds.), *Annual Review of Psychology*(Vol.45, pp. 297-332). Palo Alto, CA : Annual Reviews, Inc.

Bandura, A. (1977). Self-efficacy : Toward a unifying theory of behavioral exchange. *Psychological Review*, 84, 191-215.

Baumeister, R. F. (1998). The self. In D. Gilbert, S. Fiske., & G. Lindzey(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4th ed., Vol.1, pp.680-740). Boston, MA : McGraw Hill.

Brockner, J. (1984). Low self-esteem and behavior plasticity : Some implications for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In L. Wheeler(Ed.), *Review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4, pp.237-271). Beverly Hills, CA : SAGE Publications, Inc.

Brown, J., & Langer, E. (1990). Mindfulness and intelligence : A comparison. *Educational Psychologist*, 25(3-4), 305-335.

Brown, L., & Alexander, J. (1991). *Self-esteem index*. Austin, TX : Pro-Ed.

Burpee, L. C., & Langer, E. J. (2005). Mindfulness and marital satisfaction. *Journal of Adult Development*, 12(1), 43-51.

Buss, A. H., & Perry, M. (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Byrne, R. (2006). *The secret*. New York : Atria Books/Beyond Words.
- Carson, S. H., & Langer, E. J. (2006). Mindfulness and self-acceptance. *Journal of Rational-Emotive & Cognitive Behavior Therapy*, 4(1), 29-43.
- Carver, C. S., & Scheier, M. F. (1981). *Attention and self-regulation : A control theory approach to human behavior*. New York : Springer-Verlag.
- Crocker, J., & Park, L. (2004). The costly pursuit of self-esteem. *Psychological Bulletin*, 130(3), 392-414.
- Crown, D. P., & Marlowe, D. (1960). A new scale of social desirability independent of psychopathology.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4, 349-354.
- DeJong, P., & Berg, K. I. S. (2002). *Interviewing for solutions*(2nd ed.). New York : Brooks/Cole.
- DeLongis, A., Folkman, S., & Lazarus, R. (1988). The impact of daily stress on health and mood : Psychological and social resources as media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3), 486-495.
- Derogatis, L. R. (1983). *SCL-90(Revised) manual I*. Clinical Psychometrics Research Unit. Baltimore : Johns Hopkins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 DeVellis, R. (1991). *Scale development : Theory and applications*. Newbury Park, CA : SAGE Publications, Inc.
- Fischer, J., & Corcoran, K. (1994).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 A source book* (2nd ed., Vol.2). New York : The Free Press.
- Fredrickson, B. L. (2000).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to optimize health and well-being. *Prevention & Treatment*, 3, 1-24.
- Gorsuch, R. L. (1983). *Factor analysis*. Hillsdale, NJ : Erlbaum.
- Harter, S. (1986). The determinant and media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in the children. In P.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 of developmental psychology*(pp.219-224). New York : Wiley.
- Heine, S., Lehman, D., Markus, H., & Kitayama, S. (1999). Is there a universal need for positive self-regard? *Psychological Review*, 106(4), 766-794.
- Higgins, E. (1987). Self-discrepancy : A theory relating self and affect. *Psychological Review*, 94, 319-340.
- Higgins, E. (1996). The "self-digest" : Self-knowledge serving self-regulatory fun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1, 1062-1083.
- Hu, L. T., & Bentler, P.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yun, K. J. (1995).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Koreans' mental health*. Unpublished Ph. D. Dissertation. University of Michigan, Ann Arbor.
- Judge, T. A., & Bono, J. E. (2001). The job satisfaction-job performance relationship : A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review.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87(4), 765-780.
- Kaiser, H. F. (1974). An index of factorial simplicity. *Psychometrika*, 39, 31-36.
- Kline, R. B. (1998). *Principles and practice of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New York : Guilford Press.
- Langer, E. J. (1992). Matters of mind : Mindfulness/mindlessness in perspective. *Consciousness and Cognition : An International Journal*, 1(4), 289-305.
- Langer, E. J. (2000). Mindful learning. *Current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cience*, 9(6), 220-223.
- Markus, H., & Kitayama, S. (1991). Culture and the self : Implications for cognition, emotion, and motivation. *Psychological Review*, 98, 224-253.
- Marsh, H. W. (1990). A multidimensional, hierarchical model of self-concept : Theoretical and empirical justification. *Educational Psychology Review*, 2(2), 77-172.
- McCrae, R. R., & Costa, P. T. (1987). Validation of the five-factor model of personality across instruments and observe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81-90.
- Osteen, J. (2005). *Your best life now*. New York :

- Warner Faith.
- Raykov, T., Tomer, A., & Nesselroade (1991). Report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results in *Psychology and Aging* : Some proposed guidelines. *Psychology and Aging*, 6(4), 499-503.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osenberg, M. (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 Basic Books.
- Ryff, C. D. (1989). Happiness is everything, or is it? Explorations on the meaning of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1069-1081.
- Ryff, C. D. (1991). Possible selves in adulthood and old age : A tale of shifting horizons. *Psychology and Aging*, 6(2), 286-295.
- Scheier, M. F., Fenigstein, A., & Buss, A. H. (1974). Self-awareness and physical aggress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10, 264-273.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a). Optimism, coping, and health : Assessment and implications of generalized outcome expectancies. *Health Psychology*, 4, 219-247.
- Scheier, M. F., & Carver, C. S. (1985b). The self-consciousness scale : A revised version for use with the general population.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5, 687-699.
- Seligman, M. P. (1991). *Learned optimism*. New York : Knopf.
- Seligman, M. P. (2002). *Authentic happiness : Using the new psychology to realize your potential for lasting fulfillment*. New York : Arthur Pine Associates, Inc.
- Snyder, C., Harris, C., Anderson, J., Holleran, S., Irving, L., Sigmon, S., Yoshinobu, L., Gibb, J., Langelle, C., & Harney, P. (1991). The will and the way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n individual differences measure of hop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0(4), 570-585.
- Snyder, C., Sympson, S., Ybasco, F., Borders, T., Babyak, M., & Higgins, R. (199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tate hop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0(2), 321-335.
- Steele, C. M. (1988). The psychology of self-affirmation : Sus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elf.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21, pp.261-302). New York : Academic Press.
- Tafarodi, R. W., & Swan, W. B., Jr. (1995). Self-liking and self-competence as dimensions of global self-esteem : Initial validation of a measur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65, 322-342.
- Taylor, S. E., & Brown, J. D. (1988). Illusion and well-being : A social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mental health. *Psychological Bulletin*, 103, 193-210.
- Walsh, F. (1998). *Strengthening family resilience*. New York : Guilford Press.

Exploring the Components of Positivity among Adult Koreans :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ositive Attitude Scale

Kyoung Ja Hyun

Center for Woori Social Work Research

This study explored the components of positivity that help adult Koreans maintain a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self and the society.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was conceptualized as a core characteristic of positivity that enables one to find meanings in and/or to create meanings for the self and the society in which one lives. Thus positive cognitive tendencies such as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were hypothesized to promote self-acceptance, self-belief, self-control, adaptation to and acceptance of the society. Based on these conceptualizations of individuals' positivity, preliminary scale items were constructed, an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ositive attitude scale was attempted, using 352 college students and 401 adults. As expected, results of exploratory factor analyses revealed 6 factors, which were named as multiple perspectives, self-acceptance, self-belief, self-control, social adaptation, and acceptance of society. Among these factors, however, self-belief factor was excluded because its items were found to be loaded with other factors as well, and because results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es supported 5 factors model better than the other one. The final 5 factor scale was found to be reliable in terms of internal consistency and test-retest reliability, and to be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similar positive traits of the self as well as with psychosocial well-being variables in an expected direction, suggesting that the scale has good construct and predictive validity. As for incremental validity, positive attitude scale augmented prediction of positive emotion and stress-related reactions beyond a self-esteem measure.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and future directions for this line of research were suggested.

Keywords: *positive psychology; positive attitude; taking multiple perspectives; self positivity; self-acceptance; self-control; self-esteem; social positivity; social adaptation; acceptance of society; scale development*

1차원고 접수일 : 2009년 2월 24일
수정원고 접수일 : 2009년 5월 25일
게재 확정일 : 2009년 5월 25일